

금주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살게 하시어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제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
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옵스
니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힘껏 증거하는 자
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
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
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3월 28일 (토) 제 152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발행인 칼럼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부활을 믿는 성도의 자세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교수
대 앞에 떨면서 서 있었다. “마지막
으로 할 말이 없는가?” 라고 묻는 말
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형목이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그에게 다가
서자 그가 형목에게 속삭였다. “목사
님, 기도 좀 오래 해주세요.” 단 몇 초
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었던 것
이다.

삶의 욕망, 그것은 동서고금을 통
하여 모든 인생이 가지는 가장 기본
적이고 우선이 되는 욕구이다. 과학
이 제 아무리 발달하고 문명이고도
화 되었어도 서산에 지는 해를 멈추
지 못하듯이, 희어지는 백발을 겁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슬픈 현실
이다. 생명은 오직 창조자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그리스도만이 좌우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 인생은 그 앞에 겸
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음 너머의 새 하늘과 새 땅, 죽었
다가 다시 사는 성도의 부활은 우리
들에게 큰 위로요 소망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단순한 육체의 부활과는 또 다른 차
원 높은 부활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
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

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
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여길지어
다”(롬6:10-11).

이것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
사는 부활이다. 이 부활은 단순한 축
복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이다. 부활
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해놓고서는
죄의 질서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면
이것은 참 무서운 일이다. 부활은 관
념이 아니라 삶이고 실제이어야 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해
방된 성도는 죄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
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
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죄의 권
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
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
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에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
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우리 모두 가슴으로는
내세에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복된
자들이 되고 삶으로는 죄의 권세로
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릴 뿐 아
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승리
자가 되자.

축하시

엎서 4이 손톱

-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



백승철 목사 | 시인, 예피포도교회 담임

손톱 밑이 붉은 강 이룩더니
소리도 없이 검게 얼어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문틈에 끼인 흑로 순간 얼마나 아팠던지.
죽위에서 얼마안가
손톱이 빠질 것 같다고 그 정도면 손톱이 죽은 것이라
손톱이 죽으면 반드시 빠진다는 말도 곁들인 채
손톱이 빠질 때는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하니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해 아픔과 슬픔, 사랑을 상자에 담고
정말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손톱이 살아진 후
그 흉했던 검은색 피멍도 빠진 손톱과 함께 없어져
나는 이제 오른쪽 손 약지 손톱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손톱과는 완전히 다른,
그 손톱이 빠진 자리에 얇은 막 같은 것이 생기더니
시간은 또 골목길에 흘러 다시 손톱이 자라고
어떤 인연 아니면 연관성도 없는 손톱으로
완전히 죽어 빠졌기 때문 일게다
죽었고 단절되었던 자리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그 손톱은 더 이상 그 손톱이 아니다
가장 잘 생기고 윤기가 나며 파릇한 손톱
그 자리에 새롭게 자란 손톱의 비밀, 오늘
죽었다 살아난 예수가 그 손톱 위를 걷고 있다



2면

부활, 신앙의 대상...소망의 본
보기!



7면

부활절설교
강웅산 목사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당신은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시카고 퍼스펙티브스

국제기아대책미주한인본부(KAFHI)협력

PSP 356기 시카고집중훈련과정 (4월 13일~17일)

1973년 미국의 어바나선교대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돕기위해서 랄프윈터(Ralf Winter)박사는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시작했으며, 곧 USCWM (현재
Frontier Ventures)을 설립하여 세계선교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선교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지난 200여 년간 영미권 최고의
성경학자, 신학자, 역사학자, 선교학자들의 저술 160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게 될것입니다.

본 훈련은 북미주에서 이미 10만명 이상이 영어프로그램을 통해서 본훈련을 받았으며,
대부분은 선교현장과 지역교회에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이미 이 과정을 기초선교훈련으로 받았으며, 대부분의 선교단체에서도
필수과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회와 대학생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선교기초과정으로 채택된 프로그램 입니다. 현재는 미국 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전도종족운동과 전방개척 선교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훈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4월 17일(금) 코디네이터 과정을 수료하시면
개교회에서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월	13(월)	14(화)	15(수)	16(목)	17(금)
8:40-9:00	11:00 등록시작	도착			
9:00-9:10		기도로준비하기			
9:10-9:20		경배와찬양			
9:30-11:20		코디네이터			
11:20-11:40		성경4과 (한철호)	역사7과 (백신중)	문화11과 (손창남)	전략 15과 (한철호)
11:40-12:40	점심 식사	코디네이터			
12:40-2:00	OT 및 조별모임	소그룹1	소그룹2	소그룹3	TEST 및 수료식
2:00-3:30	성경 1과 (한철호)	성경 5과 (손창남)	역사9과 (백신중)	12과 (한철호)	코디훈련1 (한철호)
3:30-3:40			휴식		
3:40-5:10	성경2,3과 (한철호)	역사6과 (한철호)	문화10과 (손창남)	전략 13,14과 (손창남)	코디훈련 2 (한철호)
5:10-5:30		코디네이터			
					마무리

- 일 정 : 2015년 4월 13일(월) ~4월 17일(금)
- 장 소 : 시카고 헬로쉽교회(김형균 목사)
- 훈련비 : 300불 (3월 30일까지, 이후 등록 330불)
(Pay to order KAFHI) 교재 2권, 점심/간식포함
- 대 상 : 담임목사, 선교담당자, 선교헌신자 등
- 등 록 : 3월 30일까지 신청 및 훈련비 납부
KAFHI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 문 의 : 훈련원장 백신중 선교사(danbaeq@gmail.com)
코디네이터 정승호 목사(shchung@fh.org)
- 전 화 : 847-296-4555(KAFHI office)



시론

전도의 야성을 회복하라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얼마 전 일간지 종교면에서 최근 교회의 새신자의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어느 교단의 세례를 받는 새신자의 수가 50년 전에 비해 무려 1/2이나 줄어든 현실을 토로하였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전도의 파워가 사그라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1)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열정이 식었다 2)비신자들과 어울려 친구가 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졌다 3)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고 비신자에 대해 냉담하다 4)교회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다 등의 답이 나왔다고 한다. 게다가 교회가 전도를 위해 '가는' 자세보다 전도를 받기 위해 '오라'는 식으로 전도하는 오만함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갈수록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으로 치닫기 때문인 면도 있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줄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 외에도 전도의 열정이 식은 이유를 나열하였는데 하나같이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어서 마음이 아팠다.

연초에는 아무리 바빠도 양로원을 심방한다. 그중에 지난해 말 양로원에 들어간 91세 되신 장로님이 계셔서 찾아뵈었다. 장로님은 자녀들 집에 머무실 때 거의 매일 두 시간 이상씩 명함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가가호호 전도를 하신 분이였다. 명함전도지란 간략한 전도 메시지를 영어로 새겨 넣은 명함 크기의 전도지다. 그래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장로님의 전도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시게 되었는지를 여쭙더니 일제시대, 그리고 6.25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죽을 뻔 한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한국에서는 장로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했고 60세 넘어 미국에 와서는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가 안 되니 명함 전도지를 만들어 축조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20여 년 동안 총 15만 장을 만들어 뿌리쳤다. 그 중 5천 장이 남아서 지금도 자신이 갖고 있으셨다. 이제는 더 이상 다리가 불편하여 전도지를 들고 나가실 수 없으시다. 나는 15만 장이나 전도지를 돌리셨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나머지 전도지도 있어 있는지를 여쭙었다. 그랬더니 침대 밑의 철가방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다고 하셨다. 침대 밑에서 묵직한 검은 가방을 꺼냈다. 장로님께 이 전도지를 내게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데 쓰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명함 전도지를 가져오게 된 사연을 말하고 우리도 전도하자는 도전을 하였다. 그래서 전도지를 내놓았더니 몇 주 사이에 다 없어졌다.

최근에 전도에 대한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다. 대부분 우리교회에서 일 년 이상 성경공부를 해온 분들이기에 전도를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오일 체인지도 프리로 해준다는 분, 한의사를 전도하려고 약까지 지어 먹었다는 분, 인종은 다르지만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직원에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쓴다는 분, 가까운 이웃이기에 늘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 노력한다는 분, 이민을 준비하는 동생에게 이민생활에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분, 선교지에 단기선교를 다녀오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분, 언니와 오빠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틈나는 대로 전도하는 분, 구역에 있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접근한다는 분, 명함 전도지를 가져다가 마켓을 볼 때마다 자신의 아내와 전도를 한다는 분도 있었다. 그러면서 명함전도지 백만 장을 만들어 돌리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는 감동 자체였다. 특이한 방법으로 전도를 실천하는 분도 있었다. 거의 매일 아침 들리는 커피숍에서 뒷사람의 커피 값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매장 직원이 누가 내주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John3:16"이 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매장 직원도 그를 "John3:16"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는 어떻게 전도를 실천할까? 최근에 어떤 전도에 열심인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목회를 시작한 93년 이래 주일 외에는 최소한 두 시간 이상 전도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늘 설교와 일반 목회사역에 쫓기는 목사로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어 전도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펀전의 분을 따른다면 어떨까. 그는 설교만 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전도를 설교하고 전도를 가르쳤고 전도를 실천하였다고 한다. 우선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해야 한다. 교인들부터 거둬나가 해야 한다. 또한 교인들에게 전도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 본인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목사들이 전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부활, 신앙의 대상...소망의 본보기!

2015년 부활주일 맞아 그리스도의 부활 의미와 실제적 적용 소개

부활절은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다. 이는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의 날이며 동시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승리의 날이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생명이요 (요11:25-26).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활은 기독교의 유종의 승리를 장식한다.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사역의 모든 내용들도 그 중요도 측면에서 볼 때 부활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다. 사도 바울도 이를 강조하며(부활의 확실성으로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하나님 이시며, 크리스천의 신앙은 절대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적인 죽음은 모든 인간을 정복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교회력 선상에서 볼 때 이런 노력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려는 인간적인 노력이고 성령강림은 하나님의 인준을 받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동방교회에서는 부활 후 50일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잘 보여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방교회에서는 부활 후 '예수께서 부활 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50일 동안 계속 부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부활은 악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권력에 대한 승리이며 죽음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죽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죄 무거웠으니

당신이 가리키는 곳
애써 피하고

내 시선이 즐거운 곳에
머물렀나이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음성에
마음의 빗장을 닫아

내 육신에 즐거운 말만
주고받았나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뺏겼을
차가운 말과

하루에도 수십 번 돌렸을
내 차가운 등을

주님,
오늘밤
무릎 꿇은 침상에서 죽게 하소서

날이면 날마다
그 날의 밤이 내게는
깜깜한 무덤이 되게 하소서

어김없이 밝아오는 아침이
부활의 새벽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로 하여 하루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죽음을 속일 수는 없다. 아무리 큰 부자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살 수는 없다. 또 아무리 힘센 사람도 죽음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 무덤은 언제나 승리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조만간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따라하거나, 흉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갈망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활에 참여하는 과정이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죽이는 과정이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 새로운 존재로서의 경험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바로 부활 후 50일 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괴멸하시고 약자로서 사랑을 나누신 예수님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은 그런 정신을 노래하는 과정이다. 때문에 오늘날 예배나 모든 프로그램에 이런 부활의 찬양이 보다 많이 반영돼야 한다.

결국 부활은 희망이다. 영원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 주신 것들은 바로 믿음의 근본을 다시 되새기게 만든다. 즉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킨 능력이 또한 성도들 속에서도 활동한다. 언젠가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증거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단 한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되는 작업이다.

홍수희 시인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시로 설명해주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2015년 봄학기 박사과정 특강안내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 6월 특강 (June 9-1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eon Kim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부활절 설교

부활절을 맞이하며 본문을 통해 부활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상황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저녁, 우리에게 부활주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19절)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라니 생각하기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다시 살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22절). 이런 식이죠. 처음 나타나셔서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말씀하시다 말고 다시 “안녕하세요?” 하시는 격입니다. 웬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서로에게 “살롬”을 기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인사말이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 이곳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 가운데도 기원의 형태로 “평강”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매우 드뭅니다(막5:34, 눅7:50, 8:48, 10:5, 24:36, 요20:19, 22, 26). 그 중 특히 전통적인 “살롬”에 해당되는 기록(눅24:36, 요20:19, 22, 26)은 모두 부활 사건 이후의 상황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의 경우는 누가와는 다르게 여드레 후 도마도 같이 있을 때(26절)까지 포함하여 연거푸 세 번을 기록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평소에 “살롬”이란 인사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가 부활하신 후부터 인사를 하시는 것이 특이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사셨죠. 특히 공생애 이전 30년 동안은 예수님이 분명히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대인으로 사신 기간이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여기에서 굳이 “살롬”을 강조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요한에게는 뭔가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구약에서 “살롬”과 같은 어근의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멜기세덱의 등장을 두고 “살렘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7장 2절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7장과 시편 110편에 근거할 때, 제2위 성자 하나님의 강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살롬”의 최초 용례가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약속 하셨습니다(민25:12, 말2:5). 하나님

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 스스로 충실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 이후 철저한 메시아 관(觀)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평강의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평강의 왕이 메시아(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사실임이 틀림없습니다. 드디어 긴 기다림을 깨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심을 알리는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오늘날 다윗의

이 아니라 구속사적 “살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롬의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는 살롬을 위해 성육신 하였고, 살롬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롬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 살롬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살롬을 기원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내다”는 어떤 목적한 사명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받는 일이라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본문을 가리켜 “요한복음의 성령강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구속사적 일로 보셨고, 따라서 지속적인 일이 아닌 단회적 사건이므로 보신 것입니다.

용서의 일이 일어나겠지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문맥상의 표현으로 하자면 평강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화해가 있었지만, 평강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화해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죄 용서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사명 즉 평강을 전하는 역할에 있습니다. 구속사의 차원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들이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일을 하

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 살롬을 적용하려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던 사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모든 사역의 공통된 역할은 살롬의 회복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아니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오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에는 죄 용서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죄 용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롬을 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을 평화를 가져다주는 직분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가져다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보니 한 형상같은 나병환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면서 안 되겠느냐고 간청을 했고, 프란시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환자는 자기가 너무 추우니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프란시스코는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환자를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환자는 온데간데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던 흔적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곧 모든 것을 깨닫고는, 적은 기도가 바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주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따뜻한 사랑과 감격된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과 평화의 사명

(요한복음 20장 19-23절)



강웅산 목사

한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학처장
조직신학 교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나셨음을 알리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평화롭다”(2:14). 메시아가 나신 것이 평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약속대로(말2:5) 평강의 왕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원수 되었던(롬 5:10)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마디로 살롬을 완성하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자리에서 어느 말씀에 앞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살롬!” 하신 것은 실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이 “살롬”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살롬”은 단순한 인사말

을 위해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 목적이 “살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그 목적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어 평화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가 평화의 일을 하도록 보낸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어 평화의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은 구속사의 일이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평화의 일을 하는 것은 사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이 사도들의 사명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위해 22절에서 예수님은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내쉬는 동작은 성경에서 흔히 성령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 문맥에서도 역시 바로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 확인됩니다. 특이한 것은 “받으라” 명령형 동사인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 동작보다는 단회적 동작을 의미하는 과거시제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 지속적인 동작일 것이라고 속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로

다시 21절로 돌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이 사도들의 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 말은 어떻게 구속사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가의 말입니다. 본문은 그 답으로 성령의 강림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합니다. 평강을 말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을 연결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살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가 우선조건이 됩니다. 성령을 받는 구속사의 일이 우선되어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구원의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3절(“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은 22절을 근거로 한 구원 사역에 대한 선언입니다. 22절에서 말한 성령 강림의 구속사건이 전제될 때, 사도들의 구원 사역이 있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23절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죄 용서의 권세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죄

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이하에 나타나는 사도들의 사역이 이 점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사도들이 이 점에 대한 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의식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에서 첫 번째 자신의 사명을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고후5:18).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롬을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근거하여 사도로서의 직책을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화복케 하는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5:19). 사도의 직분은 곧 말씀의 사역으로서 화목케 하는 말씀이 자신에게 위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지역강의 안내

March 16-20 (3월 16일-20일)

PM 8800 Reprogramming the Church for Global Impact
Dr. Bruce Dipple

April 13-17 (4월 13일-17일)

DI 8230 Cultures in the New Testament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 은혜 나누기

시편 120편 :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시120:1)

시편 120편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나에게서 무엇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지? 과연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가?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사는 것인가?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나의 삶을 평가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사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꽃이 존재한다는 것은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었다’(롬 6:17)고 하셨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지배 하에서 죄를 섬김으로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은밀하게 보면 자신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나타내고 사는 불행한 존재요, 죄를 나타내는 것은 곧 자신이 불행 가운데 사망을 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인 스스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속하여 있든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 소속에서 영향을 받아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피조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이 잘 사는 삶의 내용이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전에는 악을, 죄를 나타내고 사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의 부분들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났는가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이 귀한 삶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문제만 지적하고 환난만 강조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존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나타나지 못하고 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존재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란 이 세상에서 꽃과 같아서 곧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시간 안에 두고 볼 때 이 세상의 만족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삶만이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함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은 문제 안으로 깊이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문제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그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무엇이 나타나는가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짖는 자체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생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표현되는 것이 더 큰 응답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응답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악의 축 ‘IS’에 균열 조짐 보인다!

이코노미스트, IS 칼리파제국 재건이 갖는 종교적 메시아이즘 허구성 폭로

지구촌 언론들의 예상대로, 중동에서는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지하디스트(성전주의)가 계속 세를 확장하고 있다. IS는 계속되는 영토 확장과 함께 잔인하게 점령 지역의 크리스천들이나 소수 민족들을 살해하고, 서방측 인질들까지도 꺼림 것 없이 목을 베는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중동에서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예멘에서 같은 종파인 수니파 이슬람 사원에 폭탄 테러까지 감행하면서, 과연 어떤 세력이 이슬람국가와의 그칠 줄 모르는 발호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까지도 낳고 있다. 나이지리아 극단 지하디스트 조직인 보코 하람이나 중국 소수민족, 위그르족 본거지인 신지앙에서도 무슬림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등, IS는 떠오르는 “새로운 악의 축”으로, 전 세계에 이슬람포비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조만 간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지는 담대하게 새로운 악의 축으로 이미 부상된 IS 안팎으로 균열 조짐이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The caliphate cracks: Though Islamic State is still spreading terror, its weaknesses are becoming apparent). 바로 IS가 전개하는 소위 “칼리파 왕국의 재건”이라는 종교적 메시아이즘이 안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이 더 이상 중동에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IS의 최고 전성기는 바로 작년 6월 이라크 군을 보란 듯이 단숨에 패퇴시키면서 모술을 함락한 시점이다. 백전백승의 신화를 구축하면서, IS는 시리아 전역을 휩쓸고 이라크 북부 지역마저 장악하면서 바그다드 근처까지 진격에 진격을 더해 그 야욕을 실현해냈다. 포로로 잡힌 남자들을 참수하는 영상을 지구촌에 보내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자 나이지리아, 리비아 그리고 아프간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추종 세력들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다. 여기에 IS 추종자들은 서방 도시들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하고, 이번 주에만 해도 튀니지에서 여행객들에게 테러를 감행해 최소한 19



건국이념 ‘칼리파제국 재건’, 무슬림 지도자들도 반대
최근 전투로 영토 25% 감소·연합군 석유시설 파괴로 재정 타격
모슬 탈환작전은 비분파적 이라크군 주도로 진행해야

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예멘에서는 수니파 이슬람 사원을 폭파시켰다.

IS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무자비한 테러단체다. 알케에다마저도 적군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선전과 책동을 통해 프로파간다를 전달하는 점에 있어서, IS에게 혀를 내두를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S가 다른 극단적 성전주의 테러 단체들과 달리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이슬람식 칼리파 제국을 재건하겠다는 일종의 건국이념에 있다.

“칼리파 제국”은 초기 이슬람 시대로부터 터키 오스만 제국이 멸망한 1924년까지 지탱돼온 ‘종교적 메시아니즘’이다. 한마디로, 무슬림이 아닌 외부 세력들을 모두 근절시키고 알라의 사도인 무슬림이 아랍 사회를 코란으로 세워나간다는 이데올로기다.

서방 세계에서 IS가 내세우는 건국이념은 가식이며 불합리한 이념이다. 많은 무슬림 성직자들도, 심지어는 알카에다까지도 IS의 성전을 통한 서구 세력의 근절과 이슬람식 통치 이념은 이단으로 무

시된다. 그러나 IS의 지도자, 아부 바크 알-바그다디는 바로 메시아니즘으로 사람들을 선동해 이슬람식 유토피아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외친다.

성전을 위한 거룩한 전사가 돼달라는 책동에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여학생들마저도 가족과 친구를 버리고 참가하고 있다. 결국 IS의 칼리파 제국 재건은 신약 시대에 있었던 열심당원(Zealots)과 다르지 않다. 이제는 중동권을 넘어 전 세계에, 부패되어지는 지구촌을 구하기 위한 성전을 수행할 열심당원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울듯이, 칼리파 제국을 재건하려는 IS 안팎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먼저 지상전에서 백전백승의 무적 행진을 진행하는 IS의 군사력이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게 된 사건들이다. 거의 바그다드 문턱에 이르렀지만, 미군의 공중 폭격을 지원받아 이라크 소수 민족인 쿠르드 전사들이 시리아 코반에서, 그리고 티그리트에서는 이라크 군과 시아파 민

병대들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 IS 군을 물리친 것이다. 따라서 IS가 점령했던 영토가 25%나 감소하게 됐다.

또한 IS의 재정적 기반 역시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연합군들이 석유 시설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퍼부어 파괴시켰기 때문이다. IS의 군 세력이 퇴각함에 따라, 점령지에 대한 전리품들 역시 말라붙어, IS 재정의 7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서방 관측통은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IS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기에 병참의 역부족과 함께 8백만으로 추정되는 추종자들에 대한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긴장과 재정 부족은 IS 안에서의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추종자들을 살해하거나, 주변 대적세력들과의 전투 중 도망을 가거나, 그리고 갑자기 뚜렷한 이유 없이 대규모의 살상을 자아내는 상황들은 IS의 내분을 가리키는 상징물들이다.

(12면으로 계속)

담임목사 청빙공고

미중서부에 위치한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는 (PCUSA 교단) 창립 45년의전통과 더불어 1세와 2세교육의 사명감과 비전을 가지신 담임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한 신앙공동체의 회복, 나누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헌신하실 목사님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 격 조 건

- 정규신학교 (M.Div학위이상)을 졸업하신분
- 3년 이상의목회경험(Full time)
-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신 분
- 이중언어가가능하신분

제 출 서 류

1. 이력서, 본인및 가족소개서 (사진포함)
2. 신앙고백과 목회 계획서
3.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5. 추천서 3부 (목회자 2명/평신도 1명)
6. 최근 6개월내 설교 3회분 (영어1회포함-CD/DVD)

제출마감일: 2015년 4월 30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제출처: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청빙위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5909 N. Rogers Ave., Chicago, IL 60646 Email: office@kupc.org

기타: 서류는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우편제출시 E-mail주소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5909 N. Rogers Ave., Chicago, IL 60646
Tel: 773-283-3377 www.kupc.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공립교 교육으로 망가지는 자녀들의 가치관을 지키라! (생)

오바마 정부에서 밀고 있는 논란 많은 “COMMON CORE STANDARD”란 무엇인가?

Common Core(CC), CC Initiatives, CC Standards, CC State Standards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Common Core State Standards(CCSS)는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NGA)와 Council of Chief State School Officers(CCSSO)들이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와 개인 기업이 자금을 대주고 있으며(funded) 모든 기본적인 학문(수학, 영어, 문학)과 학업기준은 Achieve, Inc.에서

나도 심각하게 저질인 CCSS 교육 자료들로 인해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학교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은 왜 CCSS를 반대하는가?

우선 CCSS는 학부모, 교육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하지 않고 매우 제한된 연구로 개발되었다는 게 문제다. 이 문제가 이제야 알려지게 된 것은 그동안 정부와 개발위원회들이 연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개발시켰기 때문이다. 진정한 CCSS의 본질과 교육 내용들은 공립학교들마다 가르쳐지

달,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들과 심각하게 충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일대학 아동전문센터(Yale Child Study Center)의 Carla Horwitz 박사는 “연방정부와 CCSS가 추구하는 교육은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학습/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줄뿐이다”라고 말했다.

수학교육 기준

Common Core 수학 기준 역시 K-12에서 수학을 가르쳤거나 또는 이 연령 또래에 맞는 수학에 관하여 출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즉 10개의 정보와 실화(information & nonfiction)를 담은 비공식 읽기와 9개의 학년별로 문학 읽기로 나뉜다. 그런데 Dr. Sandra Stotsky라는 알칸사스대학교 교육 개발교수이며, 매사추세츠 교육개발원(Massachusett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수석 동료 위원이었고, 미국전역에서 널리 칭찬받는 영어 기준 개발을 담당하였던 Dr. Sandra Stotsky가 CCSS를 반대하는 증언을 할 정도로 CCSS의 영어와 문학기준 교육내용이 매우 심각하다. Dr. Sandra Stotsky 박사

COMMON CORE STANDARD, 43.5억불 연방보조로 각 주 관심집중 비전문가가 만든 교재 사용,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학생들 피해

개발시키고 있다.

CCSS의 사명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CCSS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을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CCSS는 학생들이 대학 및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강력하고 현실적으로 설계 되었다. 미국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함으로 우리 사회가 세계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게 될 것이다.”

CCSS 사명 선언문은 겉으로 읽기엔 그럴싸하지만 사실상 극히 이상 주의적이면서 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43.5억 달러 이상의 “Race to the Top(RTTT)” 연방 보조금으로 인해 많은 주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2010년 CCSS를 소개했을 때 46개 주에서 이 기준을 받아들였으나 2013년 CCSS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과 교육자들이 CCSS 교재의 왜곡된 정보와 매우 위험한 교육내용들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19개 주에서는 CCSS를 자신들의 주에 못 들어오게 폐지법안을 만들어 CCSS 들어오는 것을 막기 시작했고, 자유분방한 민주당 정치인들이 몰려있는 주들(예: 캘리포니아, 뉴욕, 매사추세츠, 보스턴 등등) 외의 주들에서는 CCSS를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자유분방한 주들에서도 현재 너무

먼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것이다. 가장 큰 이슈는 각 과목들이 개발되는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나 경험자들이 없이 “과목별 교육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비현실적이며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교육을 만들게 되었다.

유아 교육 기준

예를 들어, 유아교육의 기준 교육 자료들을 개발시키면서, CCSS 위원회에서는 단 한 명의 유아 교육자나 전문가도 없이 자료를 만들었다. 하와이대학교에서 일하며, Advocac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ors의 위원장인 Stephanie Feeney는 “CCSS를 만든 사람들은 아동발달 또는 유아교육에 아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500명 이상의 유아 전문가들이 CCSS 유아 기준을 반대한다고 서명했다. 또한 교육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발달심리학자 및 연구원이 Joint Statement of Early Childhood Health and Education Professionals on the Common Core Standards Initiative에 함께 서명하였다.

내용은 “유아 CCSS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연방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CCSS에서 새롭게 내놓은 ‘아동 기준 교육 자료’들은 이미 검증된 인지과학, 신경과학, 아동발

Jason Zimba와 William McCallum라는 사람들이 작성했다는 것부터 문제가 된다. 수학 기준 및 평가 전문가이며 이전 U.S. Department of Education, USDoeD) 관리로 있었던 Ze’ev Wurman이 Senate Education Committee and House Downsizing Government Committee에서 증언하기를 “CCSS 수학 기준은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에 비해 선명도와 엄격에 실패한다... 대학 준비 규격은 대부분 4년제 주립 대학의 입학 요구 표준보다 훨씬 더 아래다”라고 밝혔다.

영어와 문학(Arts/Literacy) 기준

역시 같은 문제다. CCSS “영어/문학 기준위원회”는 고등학교 영어와 문학을 연구하고 교육기준내용들을 만드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에는 고등학교 영어선생이나 영어전문 교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계속 증명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주로 시험 작성자, 시험업체, 그리고 행정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가 막히게도 CCSS 위원회에서 영어/문학 기준교육 내용들을 작성한 David Coleman과 Susan Pimentel은 K-12(유치원-고등학교)에서 가르친 적도 없고 K-12 교육 과정을 맡거나 전문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수업 발표를 출판한 적도 없었다.

참고로 CCSS는 모든 영어와 문학

는 미정부 상원 교육위원회와 하원 축소교육위원회(Senate Education Committee and the House Committee on Downsizing Government) 앞에서 CCSS를 반대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Stotsky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좋은 영어와 문학 수업은 학생들에게 도전적이고 학생들로 깊이 사색할 수 있게 함으로, 그들의 창의력과 어휘력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더 좋은 대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Dr. Sandra 박사는 영어 학습에 있어서도 문학과 고전 문학, 영어 어휘, 구조, 스타일, 관점들, 비유적 언어 및 창의력 있는 언어와 사고들을 개발시켜줘야 하는데 CCSS는 이런 것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 영어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책을 읽게 함으로 사색하고 나누며, 그들과 달랐던 관점을 나누게 하는 대신 대통령의 “Executive Order 13423”을 읽게 한다는 것이다. 즉, CCSS에서 주장하고, 가르쳐지고 있는 정보나 실화(information & nonfiction)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실력과 문학실력을 높려준다는, 또 좋은 대학에 준비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그 어디에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lspc0316@gmail.com

Q: 저는 설교를 통해 일본의 성경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가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주님을 믿기 전에 아마테라스 오오카미를 건국신화로 하는 나라의 떠오르는 태양을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고 그는 과학한 우상을 많이도 섬겼습니다. 아침마다 이름을 알지 못할 잠신들에게 봉양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그가 회심했을 때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죄인 중의 괴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가난했던 무사의 아들은 삿포로농업학교 입학 계획을 합니다. 당시 일본은 황무지였던 홋카이도를 개척하고자, 안으로는 국비로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밖으로는 우수한 미국인을 교사로 채용했습

우찌무라 간조, "성서일본" 모토로 기독교학생들 가르쳐

니다. 그때 삿포로농업학교에 채용된 교원이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 박사였습니다. 매사추세츠대학 총장이었던 그는 오모지 선교를 위해 일본에 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지 8개월 동안 체류했을 뿐인데도 1기 졸업생 15명 전원을 기독교 신자로 세웁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었고, 국비 지원이 됐기에 삿포로농업학교 제2기생으로 1877년 16세에 입학한 우찌무라는 1기생 선배들로 인해 신자가 되기를 강요받습니다. 그제 살아서 가까운 신사에 가서 일본의 토속신에게 기도도 하지만, 결국은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판단하고 1878년 6월 21일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은 즈음에 쓴 그의 고백입니다. “제상에는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800만 이상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내 미신의 뿌리에 도끼날을 대었다.”

크라크 박사의 제자인 우찌무라 간조, 다른 말로 내촌감삼은 후일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일본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많은 사회활동을 한 것보다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하루 몇시간씩 자기 다다미방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인재를 키우는 것을 중심사역으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의 생애의 숙원은 “일본을 성서위에 세우자!”라는 “성서일본”이란 모토를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강조한 슬로건은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이어 받았습니

다. 이 내촌감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한국의 김교신, 함석헌,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리고 두레마을의 김진홍 목사도 신학생 시절부터 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김교신 선생은 성서일본을 성서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이라는 슬로건을 강연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조국을 위해 이 3가지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사역자 청빙

Seeking for a part-time(20 to 25 hrs/wk) or full-time (40hrs/wk), dedicated and faith-filled Youth/Elementary/Preschool Director to minister to the needs of our children/youth, and leading them to spiritual commitments, disciplines, and discipleship that will result in spiritual maturity.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1. 교회 교육에 경험 있으신 분
2. 2세 신앙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신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화합하며 재미있게 일하실 분
3. 영어 사용이 가능하고, 건전한 교단 배경을 가지신 분
4. 미국 영주에 지장이 없는 분

- 서류제출(이력서(Resume)와 신앙간증서(Statement of Testimony))들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례비는 교육과 경험에 준하여 결정되고 필요한 이사회비를 도와드립니다.

장소및연락처

Attn: 담임목사심수일(Senior Pastor: Sooil Shim)
950 Gage Blvd. Richland, WA 99352
Tel:509-627-9005E-mail:sooil10@hotmail.com

중부워싱턴 한인장로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달라스연합교회 공동체는 1966년(49년 전)에 창립되어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위치하며 이민 목회에 비전과 소명으로 교회를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

1.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노선을 따르는 목사
2. 정규신학교 신학대학원(M. Div. 이상)을 졸업하신 분으로 3년 이상의 이민목회 경력(부목사포함)을 포함하여 총목회 경력이 5년이상 되신분 (미국 정규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 기간을 이민목회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3. 연령: 만40세 ~ 만55세
4. 해외한인장로회(KPCA)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분
5. 이중 언어(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과 설교에 불편이 없으신 분
6. 합법적인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자필 이력서 (신력, 학력, 경력 포함)
2. 목사안수증명서와 최종학위증명서
3. 자기 소개서와 교회론및 목회관 (각각 1000 단어 이내)
4. 최근 설교동영상 3회분 (DVD or Web_link 등)
5. 추천서는 2명이상 (밀봉날인과 추천인연락처 요)

제출 방법

1. 우편주소: The Korean Church of Dallas Attn: Pastor Search Committee 1855 N. Josey Ln. Carrollton, TX 75006
2. E-mail : chong.c@sbcglobal.net (위원장), davidkim.kcd@gmail.com (서기)
3. 제출마감: 2015년 4월 30일

기 타

1. 제출서류는 우편 혹은 이메일에 첨부(PDF파일)로 먼저 보내주시고 E-mail (chong.c@sbcglobal.net와 davidkimkcd@gmail.com)로 자신이 보낸 모든 서류를 보냈음을 필히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 통과된 분에게는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www.yonhap.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스연합교회

청빙 위원회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러시아의 라크(Lak)



106,200명의 라크족은 러시아 남부의 코카서스 북동부 지역 다게스탄으로 알려진 곳에 살고 있다. 그들은 다르긴족과 매우 가까운 관계다. 대부분의 라크족은 다게스탄의 중심 산악지대에 위치한 카치쿠무흐강, 틀레우사라흐강, 하타르강 상류 분지에서 살고 있다. 높은 산과 고원이 펼쳐진 이 지역은 해발 2,000미터

(6,560피트) 이상의 고도에 있어 강우량이 적고 가뭄이 흔하다. 양치기는 대부분 라크족의 전통적인 직업이며, 지역 장인들이 마을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라크족은 경제적 이유로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4년, 많은 사람들이 다게스탄에서 멀리 떨어진 북동부 지역의 초원과 언덕지대로 이주했다. 그 이후, 그들은 러시아 문화에 동화됐다. 오늘날 그들은 아마도 구소련에서 가장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종족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어가 유창하며 다른 몇 개의 언어도 한다.

삶의 모습
수 세기 동안 대부분의 라크족은 양, 염소를 길렀으며, 때로는 소, 말, 노새도 길렀다. 그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산간지대에서 저지대 목초지로 가족을 이동하는 이동 방목을 했다. 남자들은 가족을 기르고 돌보며, 여자들은 농사일을 한다. 보리, 콩, 밀, 감자도 재배하지만 육류와 우유 제품이 주식의 대종을 이룬다.
이들은 마을마다 공예를 전문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쿠무그 마을은 보석과 구리 세공으로 유명하다. 다른 마을들은 상업과 시장, 안장과 마구, 석공과 양철공, 사탕 제조, 심지어 곡예로도 유명했다. 또한, 여인들은 양탄자 제조, 방직, 도자기 제조 등 일을 한다. 소련이 이 외진 지역을 개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들은 상당 부분

라크족 땅에 그대로 살아남아있다. 다게스탄의 지배적인 산업은 직물, 의류, 가족제품, 구두 제조와 육류, 치즈, 버터 생산 등이다.
전통적으로 라크족은 “투흠(tukhums)”이라는 대가족(또는 씨족) 단위로 살았다. 각 투흠은 공동 남자조상의 자손들인 가족이 몇몇 모여 이루어졌다. 투흠의 구성원은 가족 일을 서로 돕게 돼있다. 오늘날, 현대화와 계속되는 이주 때문에 투흠의 중요성은 침식되어가고 있다.
결혼은 대개 투흠 안에서 하고 전통적으로 양가의 부모가 결정한다. 가장 연장자인 여자가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다. 신부 값을 지불하는 관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한된 정도에 그친다. 현재 그러한 거래는 재정적인 것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다.

19세기 이전 라크족은 아랍문자를 사용했다. 하지만 1928년, 러시아의 강요에 의해 라틴문자를 쓰게 됐다. 1938년에 다시 키릴문자로 바뀌었고, 러시아 단어가 아랍과 페르시아 단어를 대신하게 됐으며 과학용어나 정치용어는 러시아 철자를 사용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라크족의 문어는 구어 형태와는 상당히 다르다.

신앙
아르메니아인과 그루지아인이 6세기에 복음을 전했지만, 라크족은 8세기에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라크족은 다게스탄에서 이슬람을 접한 최초의 민족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아직도 이웃 종족 가운데서 독특한 위치의 문화적 종교적 명예를 누린다.
오늘날 라크족은 거의 100% 샤피파 무슬림이다. 이슬람은 집단의

결속을 장려하며 상호간의 보호를 제공한다. 구성원들은 각자가 일거리를 찾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또 혼인을 중매하고, 공동묘지를 유지하며, 논쟁을 해결한다. 하지만 시골에 사는 일부 라크인들은 파종, 수확, 동물사육과 관련된 이슬람 이전의 의식을 지키기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다게스탄은 구소련에서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견고한 요새다. 늘어가는 이슬람 인구와 무슬림 정치인들의 증가하는 영향력으로, 수백개의 이슬람 사원(mosque)과 이슬람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 라크인 기독교인이 전혀 없으며 그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도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IS 피해자들 “그들을 용서합니다”

“IS를 용서합니다.” 이슬람국가(IS)에 핍박당한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통해 폭력에 저항하는 눈물겨운 일이 지구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22일, 미국의 기독교잡지 크리스체니티티투데이에 따르면 IS 때문에 난민캠프에 살고 있는 소녀와 리비아에서 IS에 의해 참수된 콥트 크리스천의 가족들이 “IS를 용서한다”고 언급해 아랍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크리스체니티티투데이도 해당 기사가 6210회나 공유되는 등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떠올랐다.

중동의 기독교 위성 TV인 ‘SAT-7’은 IS의 침공으로 이라크 모술의 카라코쉬에 살다가 예르빌로 피신한 10세 기독교인 소녀 미리암과 인터뷰 했다. 진행자는 “네가 살던 집을 빼앗고 고생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느낌이 드냐”고 묻자, 미리암은 “나는 그들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IS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진행자는 “너도 용서할 수 있니?”하고 묻자, 미리암은 “그렇다”고 했다.

SAT-7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등 5개 지부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매일 1500만명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수백만 명이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독교 소식을 다루지 않았던 ‘알아라비아’ ‘윌7’ 등 범 아랍계 방송들도 미리암의 고백을 뉴스로 다루며 침소했다.

한편 지난달 리비아에서 IS에 의해 참수 당한 콥트 기독교인의 가족들도 용서를 전했다. 베시르 에스테파노스라는 청년은 SAT-7의 ‘위 월 싱’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IS는 나의 두 형제를 참수했지만 그들이 선포한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은 참수하지 못했다”며 “(IS가) 형제들을 참수할 때 오디오를 끄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IS 대원들을 구원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집트 SAT-7 프리드 사미르 대표는 “이들 동영상은 아랍 세계에 엄청난 관심을 촉발시키며 확산 중”이라며 “미리암과 베시르의 메시지는 용서를 통해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S, 이라크교회 십자가 쓰러뜨리고 IS깃발 꽂아

이슬람 무장세력(IS)이 이라크 교회 십자가를 쓰러뜨리고 IS 깃발을 꽂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16일 중동 언론연구소(MEMERD)는 IS가 이라크 니네베주에 있는 교회에서 유물을 파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IS 대원은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IS 깃발로 바꾸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벽화를 망치로 훼손하거나 성모마리아상을 넘어뜨려 파손했다. IS는 고대유물이 다신교 및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이슬람법을 위반하고 우상숭배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며 파괴하고 있다.

스티븐 스탈린스키 중동언론연구소장은 IS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며 다른 종교와 소수민족을 제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국인들 잇단 IS 합류 시도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들어가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려던 영국 여성이 16일 터키에서 체포됐다.

터키 당국은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가담하려 한 혐의로 ‘J.N.H’라는 21세 영국 여성을 앙카라의 버스터미널에서 체포해 조사했으며 국외로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터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여성이 지난 14일 영국을 떠나 벨기에를 거쳐 터키에 입국했으며 이후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동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서와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IS가 장악한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 여성 한 명이

앙카라에 구금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 여성에 대한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터키 경찰은 지난 13일에도 IS에 가담하려고 시리아로 건너가려던 영국 10대 남성 3명을 체포해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에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 영국 10대 소녀 3명이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입국해 IS에 합류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법원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누스라전선에 합류한 형제들을 둔 16세 소년의 출국을 17일 금지했다. 법원은 리비아와 영국 이중 국적의 이 소년이 “연약한 젊은이”라며 소년에게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 지역 당국은 “소년이 형제들이 걸 어간 길을 따라가길 바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다섯 가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영국 일간 미러는 호주의 뉴 사우스 웨일즈에 사는 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시한부 환자가 마지막 순간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소개했다. 브로니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삶의 끝자락에 있는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삶의 통찰과 인생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

1. 남의 눈치를 보고 척을 하며 살았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후회였다.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온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 안타까워했다. 그들은 나 자신을 위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도 조인했다.

2. 너무 일만 하려다 살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너무 일만 하며 인생을 낭비했다. 일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다른 시도는 해보지도 않았다.

3. 나의 감정 표현에 용기가 부족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한 것을 후회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4.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했다: 죽음을 앞두고

친구가 가장 그리웠으나 건강할 때는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이다.

5. 행복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다: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 알게 되는 순간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당당하게 나 자신의 행복을 원하며 살아야 한다.

“튀니지박물관 테러는 아랍민주주의 공격”

외국인 관광객 등 19명의 희생자를 낸 튀니지 박물관 총기 테러 사건은 ‘아랍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간주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19일 전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는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나라이자 지난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뤄지던 등 아랍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변신해온 나라다.

튀니지는 2010년 말 재스민 혁명으로 장기 독재 정권을 타도했다. 이후 민주주의 시위가 주변국으로 번지면서 아랍의 봄으로 이어졌다. 튀니지는 지난해 2월 민주헌법을 채택한 데 이어 11월 대선을 치러내면서 아랍의 봄의 유일한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서구의 산물’인 민주주의가 아랍을 휩쓰는 데 반발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러 역시 민주주의에 타격을 주기 위한 차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튀니지의 주요 수입원인 관광 자원에 테러를 가해 현 민주정권에 부담을 주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튀니지 극단주의 세력 가운데 그동안 ‘이슬람국가(IS)’에 자원한 이들이 많아 이번 테러가 IS와 연계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비브 에시드 튀니지 총리는 현장에서 사살된 범인 두 명의 신상이 ‘야신 라비디’와 ‘하뎀 카츠나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튀니지 정보 당국은 이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4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18일 낮 12시30분쯤 튀니지 수도 튀니스 국회 의사당 인근 바르도 국립박물관에 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쳐 총기를 난사, 외국인 관광객 17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숨졌다. 숨진 외국인은 일본인 3명을 비롯해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출신이다.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해외한인장로회 일본 노회 소속 요한서울 교회는 일본선교, 세계선교 비전의 하나됨과 영감있는 복음적 말씀선포, 섬김의 목회로 **요한서울 교회의 성장에 함께 하실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자 격

(1) 연령: 만 40-59세
(2) 학력: 정규신학대학 또는 일반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 (M.Div.)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3) 경력: 목회경력 10년 이상

2. 제출서류

(1) 1차 서류
● 담임목사 지원서(최근 3개월 이내 명함판사진 1매 포함) 1부
● 추천서(존경하는 목회자 2인 이상)
● 사역교회 주보
● 학력조회동의서
(2) 2차 서류 (1차 심사 후 개별통지 받은 분에 한함)
● 학위증명서 각 1부
● 본인 및 사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증명서, 자격증, 출판물 등

3. 서류제출 기한 및 제출처

(1) 2015년 4월 8일(수)까지
(2) 이메일 주소: yohanbridge@naver.com

4. 기 타

(1) 지원서는 교회홈페이지 (www.yohan.com)에서 다운받아 사용함
(2) 모든 서류는 메일로만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궁금하신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4) 결과는 개별 통지함

해외한인장로회 **요한서울교회** 임시당회장 노명숙 목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OC부활절연합새벽예배

부모와 자녀 그리고 다민족이 함께 드리는 부활절연합새벽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주후 2015년 **4월 5일**(주일) 새벽5시15분
-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노창수목사) 714-722-7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사회: 김기동목사(OC교협 회장)
- 설교: 한기홍목사(미기총 회장)
- 찬양: 은혜한인교회 연합찬양대
- 축도: 노창수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

*** 영어와 스페니쉬 통역을 합니다.**
*** 헌금은 전액 타민족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라면 기금으로 쓰입니다.**

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목사)
OC한인목사회(회장 객재필목사)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집사)
OC원로목사회(회장 최승구목사)
OC원로성직자회(회장 한영수목사)
OC여성목사회(회장 이선자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종대장로)
주관: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한인목사회,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2)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세속 역사가 요세푸스 (3)

과연 다음의 글을 어떻게 평가 하여야 할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전도’만 이루어지면 된다.” 절대로 받아들이 수 없다. 물론 성경은 역사서를 목적으로 기록된 책은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역사와 연관된 실제 인물과 사건을 토대로 기록되었다. 효과 있는 복음 선포를 위하여 사건을 과장시키거나 허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질문: 세속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기록된 성경과 동일한 인물에 대한 서술들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역사성을 확인시켜 주는지 알고 있는가?

1) 교회역사를 보면...

■ 성경에 기록된 다수의 헤롯 예수와 사도시대에 유대에서 헤롯 왕가는 가장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다수의 헤롯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요세푸스는 10명의 아내와 15명의 자녀를 두었던 헤롯 대왕의 가족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은 예수 탄생하였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나이가

요세푸스, 세례요한이 부당하게 순교당한 역사적 사실 증거 역사적 배경 이해 돕는 보충자료로 관심인물은 헤롯 안디바

들을 죽일 것을 명령한 인물이다(마2:1). 로마황제는 헤롯대왕이 통치하던 땅을 삼등분하여 그의 아들들을 나눠주고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허락하였다. ‘헤롯 아켈라오(Herod Archelaus)’에게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등 전체의 반을 맡겼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갈릴리와 베로아를 맡은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와 갈릴리바다 북쪽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맡은 ‘헤롯 빌립(Herod Philip)’에게 각각 나누어 맡겼다. ‘헤롯 아켈라오’는 예수의 부친 요셉이 젓먹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는 사건에 등장한다. 성경은 요셉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에 가기를 무서워하여 갈릴리지방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마2:21-22). 무엇이 두려웠기 때문

는데, 5번째 총독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선고한 본디오 빌라도이다.

성경은 ‘헤롯 빌립’에 대해 매우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눅3:1). 우리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세푸스의 글을 통하여 접할 수 있다. 그가 결혼한 살로메는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에서 아름답게 춤을 춘 후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던 헤로디아의 딸이다. 요세푸

반응이 흥미롭다. 그를 “여우”라고 부르며 적극적으로 비판하신 것이다(눅13:31-32). 본디오 빌라도가 잡혀온 예수를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다. 이때 그는 자신이 들었던 소문대로 예수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좋아하기도 하였다. 기대와 달리 예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눅28:8-12).

스 ‘유대고대사’에 그를 선한 왕으로 소개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간청하는 자들의 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즉각 실행에 옮겼기에 백성으로부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 헤롯 안디바와 세례 요한
세 명의 분봉왕 가운데 ‘헤롯 안디바’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이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를 적극적으로 죽이려 했다. 이에 대한 예수의

세례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크게 책망하는 일이 있었다. 그가 로마를 방문하였다가 자기 이복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후 이혼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에 ‘헤롯 안디바’는 자신을 책망하던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가 결국 그의 목을 베어 죽였다(마14:1-12).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가 버린 아내의 부친,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 4세(고후11:32)가 크게 분노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복수심을 불태우며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를 침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헤롯 안디바’의 군대를 무찌르고 크게 승리하였다.

요세푸스는 ‘헤롯 안디바’가 아레타스 4세(Aretas IV)에게 패한 원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여론을 ‘유대고대사’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헤롯 안디바’가 선한 사람이었던 세례요한을 무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이 책에서 요세푸스는 세례요한을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서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영혼의 정결함을 경험한 자들이 육체를 정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깨달음과 감명을 받아 그를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반란을 미리 막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가 그를 처형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요세푸스가 남긴 요한에 대한 기록과 성경을 비교해보자. 요세푸스는 세례요한과 예수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그의 죽음이 정치적인 동기였다고 언급하였다. 나아가서 요세푸스의 증언과 달리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다(막1:4).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세례에 의해 연합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은 성경과 동일하다(눅1:17).

(12면으로 계속)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5)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다윗은 왜 법궤를 오벰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했던 것일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법궤가 가는 곳에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는 성소에 안치되지 않았다. 실로의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 불타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사울 왕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그래서 법궤는 오갈 데 없이 아미나답 제사장의 집에서 20여년 동안 보관되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아미나답

의 집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하고 옷사를 통해 법궤를 운반하도록 했다. 마차에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만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자 옷사는 순간적으로 법궤를 받아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옷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법궤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

도 모른다.

어떤 이는 옷사가 경거망동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급사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옷사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법궤가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옷사는 법궤를 만짐으로 자신이 죽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법궤를 지켜낸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무정하게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만으

로 옷사를 죽이셨을까? 문제는 법궤는 법궤를 맡은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마차에 싣고 소가 끌고 가도록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셨던 것이다(대상15:13). 옷사가 죽은 책임은 제사장 아미나답과 다윗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가는 계획을 취소한다. 그리고 오벰에돔의 집에 보관하도록 했다(삼하6:10-11). 옷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 법궤를 잘못 다루다 재앙이라도 입을까 두려워서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기를 꺼렸던 것이 다.

오벰에돔은 가드 사람이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였다. 그러면 오벰에돔이 이방인이었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벰에돔은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 돌보

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핫 자손에게 법궤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돌보는 책임이 주어져 있었다(민3:29-31). 오벰에돔은 고핫 자손이었다(대상26:1, 4). 그는 고라의 후손으로서 그의 자녀들은 성전 문지기로 일했다.

이방인이었던 오벰에돔이 법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성소의 문지기 일까지 맡게 되었다고 하는 설교를 가끔 듣는다. 닌센스다.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 레위의 후손들만이 성소에서 일할 수 있었다. 절대로 다른 지파는 성소의 일을 맡을 수 없었다.

법궤가 오벰에돔의 집에 모셔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것은 법궤가 그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시였다. 우리는 다윗이 버리고 간 법궤를 오벰에돔이 보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합법적으로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내버리고 돌보지 않은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갔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옷사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다.

만일 오벰에돔이 법궤를 집에 모셔서 복을 받은 것이라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법궤를 전정터로 옮겼을 때 왜 대패했을까? 법궤는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피비린내 나는 전정터에 법궤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오벰에돔을 왜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일까? 아마 오벰에돔을 ‘가드 사람’(the Gittite)이라고 소개한 것은 그가 단 지파의 경계 안에 있던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 림몬(Gath Rimmom)에서 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수19:45; 21:20-24). 이메일: jinhee1004@yahoo.com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화'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1월 송구영신, 신년예배
1월 ~ 10월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월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월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월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월 ~ 13월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월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월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월 ~ 3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1월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월 ~ 7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 12월 GST 신학생훈련(34차)
15월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월 ~ 19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2월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월 ~ 25월 동충교회(윤석호목사)
27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3월

2월 ~ 4월 예수바전교회(박창홍목사)
5월 총신대학교 심령수련회
9월 ~ 11월 (합동)대백시찰 연합성회
16월 ~ 19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3월 ~ 3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7월 ~ 29월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4월

1월 ~ 4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 8월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월 ~ 16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월 ~ 22월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월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월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월 ~ 29월 화평교회(이재욱목사)

5월

4월 ~ 7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1월 ~ 21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월 ~ 27월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월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014년 1월

1월 송구영신, 신년예배
1월 ~ 9월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월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월 ~ 12월 청파중앙교회(김항우목사)
13월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월 ~ 15월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6월 ~ 25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월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월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월

3월 ~ 6월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월 ~ 13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월 ~ 19월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월 ~ 8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월 ~ 13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월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월 ~ 19월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월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월

3월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7월 ~ 9월 목동감리교회(최현구목사)
14월 ~ 17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월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1월 ~ 10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 4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2월 ~ 15월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19월 ~ 22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25월 ~ 28일

6월

9월 ~ 11월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흥교회(최성은목사)
16월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1월 ~ 10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GST 33rd 신학생훈련
14월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월 ~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월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월 ~ 7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월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월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월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월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월 LA 평화교회(김은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의준목사)

9월

1월 ~ 6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월 ~ 11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월 ~ 16일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이종일목사)
17일 앙문교회(정영교목사)

21월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재목사)
24일 블레시 샬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물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월 ~ 7월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월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월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월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1월 ~ 8월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월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시 집회)
10월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월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월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월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월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월 ~ 11월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월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2015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지역구분

(주후 2015년 4월 5일 주일 새벽 6시)

교협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한마음침례교회) 917-922-0508 교협총무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 646-270-9037

지 역	장 소	지역준 비 위 원 장
1 Corona	뉴욕동양제일교회(반상석 목사) 516-316-3833 뉴욕동양제일교회(반상석 목사) 516-316-3833, 9092bin@hanmail.net 뉴욕한빛교회(윤종훈 목사) 516-414-7787, pasyun@korea.com 뉴욕영락교회(최호성 목사) 718-533-1272, paulsias@yahoo.com 뉴욕한길장로교회(최성훈 목사) 718-468-4541, 뉴욕그리스도의교회(신장진 목사) 718-424-0084, nychurchofchrist@gmail.com 뉴욕평안교회(안관현 목사) 718-279-9436, khsh12@hotmail.com 뉴욕푸른초창교회(신명철 목사) 718-810-4307, paulshin221@gmail.com 뉴욕우리교회(조원태 목사) 718-309-6980, cwtpeace529@gmail.com	조원태 목사(뉴욕우리교회) 718-309-6980
2 Woodside 1	뉴욕아리랑교회(김수태 목사) 646-623-4551 뉴욕아리랑교회(김수태 목사) 646-623-4551, rev.stkim@gmail.com 큐가든성교회(이재봉 목사) 718-441-9651, jfc554@msn.com 뉴욕배다스교회(오상연 목사) 646-644-1611, pastor.reinauh@gmail.com 뉴욕교회(최양선 목사) 201-967-8424, hpycs@msn.com 킨즈영광교회(김철봉 목사) 718-426-7255, kwelod@gmail.com 뉴욕빌그림교회(김석중 목사) 718-791-4714, 47paul@hanmail.net 뉴욕나사렛교회(이승록 목사) 917- 597-2322, wooree49@hotmail.com 뉴욕한성교회(김일국 목사) 718-428-4198, mgugi@hanmail.nt 뉴욕남교회(박상일 목사) 718-639-8309, 새문침례교회(노기승 목사, 백창진목사) 914-242-4626, 718-592-4008, rhokisong@yahoo.com 뉴욕예언동산장로교회(김영호 목사) 718-672-5925 주님의포도원교회(문정국 전도사) 718-517-0875, vineyard0309@naver.com 뉴욕제일장로교회(조성훈 목사) 718-899-3120, kfcpcny@hotmail.com	이재봉 목사(큐가든성신교회) 718-441-9651
3 Sunnyside	뉴욕장로교회(이승현 목사) 718-706-0100 뉴욕중앙교회(양조경 목사) 718-746-4522, 아스토리안교회(김성인 목사) 845-235-2264, seongin@gmail.com 뉴욕장로교회(이승현 목사) 718-706-0100, office@nycfamily.com 뉴욕한인중앙교회(조창경 목사) 718-225-4197, kccofny@hotmail.com 뉴욕빌립보장로교회(신상능 목사) 718-249-5455, sungnung007@yahoo.com 예사람교회(손한권 목사) 201-768-6100, lpmchurch@gmail.com 뉴욕서광교회(최고선 목사) 718-687-6763, informs@gmail.com 뉴욕동부교회(유영진 목사) 917-828-0931, yje0128@naver.com	손한권 목사(예사람교회) 201-768-6100
4 Elmhurst	킨즈한인교회(이규선 목사) 718-672-1150 킨즈감리교회(이철환 목사) 347-408-4214, 킨즈한인교회(이규선 목사) 917-891-0593, kims5812@gmail.com 뉴욕주찬양교회(김희복 목사)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뉴욕성신교회(신현택 목사) 718-314-6625, 뉴욕열매교회(김재현 목사) 718-779-4678 지안교회(임희수 목사) 646-338-7297, zianch@cs.com 교협 중경이사장 염정남 장로 646-775-0402 (킨즈한인교회) 교협 중경이사장 이광호 장로 718-216-5357 (뉴욕동부교회)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교회) 646-270-9037
5 Flushing 1	뉴욕복된교회(최재욱 목사) 718-616-3164 뉴욕나니교회(정관호 목사) 917-750-8174, kwanhochung@hotmail.com 뉴욕복된교회(최예식 목사) 718-461-3164, nygodnewschurch@hotmail.com 뉴욕순복음연합교회(양승호 목사) 718-359-0166, pastoryshyang@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이종원 목사) 917-373-3411, chongwee2001@yahoo.com 킨즈동부교회(정대영 목사) 718-757-2379 dchung3927@yahoo.com 뉴욕새살교회(나광수 목사) 917-733-5882, pastorna@hotmail.com 킨즈성결교회(조승수 목사) 718-551-1081, seungsochoo@hotmail.com 뉴욕여버그린교회(문덕연 목사) 718-224-4591, jacobmoon@hanmail.net 뉴욕주호재장로교회(이명순 목사) 646-709-7111, jymbs@msn.com 뉴욕코나스톤교회(최은종 목사) 917-655-7749, joyfulchoi@gmail.com 뉴욕하늘성교회(민병욱 목사) 917-294-2097, petermin@yahoo.com 뉴욕주양장로교회(김기호 목사) 646-763-4211, khokim@hotmail.com 교협 29대 부이사장 이수현 장로 646-315-5999 (순복음연합교회) 뉴욕충신교회(김태택 목사) 732-684-0222 이수영 목사(뉴욕동대교회) 917-657-1768	김기호 목사(뉴욕주양장로교회) 646-763-4211
6 Flushing 2	뉴욕분화교회(황성구 목사) 718-961-1191, 뉴욕나사렛교회(정주성 목사) 718-838-4494, chungjoosung@gmail.com 뉴욕연합장로교회(최지호 목사) 646-824-1857, gifi9191@gmail.com 뉴욕순복음제일교회(한영택 / 김해자 목사) 718-490-4050, 뉴욕충신장로교회(김태현 목사) 732-684-0222, khtmision@hotmail.com 뉴욕한인장로교회(안영남 목사) 917-208-0372, 뉴욕침례교회(박춘수 목사) 917-930-5502, pcs13455360@gmail.com 뉴욕동대교회(이수영 목사) 917-657-1768, sy11365@yahoo.com	이수영 목사(뉴욕동대교회) 917-657-1768
7 Flushing 3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이만호 목사) 718-938-1777 이문성 목사(뉴욕망우리장로교회) 646-438-1200 뉴욕서부교회(이희태 목사) 718-321-1649, 뉴욕우유천교회(안승백 목사) 646-233-8770, fbcahn@hotmail.com 뉴욕동서교회(이창종 목사) 917-399-6754, rev.cjee@gmail.com 순복음안디옥교회(이만호 목사) 718-938-1777, usfcg@hotmail.com 새생명장로교회(허윤준 목사)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한성교회(이경서 목사) 917-440-9442, jesustree07@gmail.com 은누리교회(정순성 목사) 718-344-2792, onnuree@gmail.com 열방수사교회(안인섭 목사) 646-402-3486 뉴욕망우리장로교회(이준성 목사) 646-438-1200, moodylee59@yahoo.com	이문성 목사(뉴욕망우리장로교회) 646-438-1200
8 Flushing 4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 347-749-4232 박영준 목사(뉴신일교회) 347-782-2171 미주사람교회(백문현 목사) 718-679-7934, moonbeck@gmail.com 별명성결교회(정기성 목사) 917-698-3197, 킨즈순복음교회(박현영 목사) 917-370-5954, pyrpark2240@hotmail.com 스카망장로교회(정도인 목사) 718-961-2155, 후리성장로교회(조성희 목사) 917-683-4192, newdays@hotmail.com 뉴욕순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 718-961-2728, moonlight8937@hanmail.net 뉴욕신일교회(박영준 목사) 347-782-2171, mangjoonparks@hotmail.com 뉴욕승리교회(박이스라엘 목사) 917-667-8555, israelpack@gmail.com 뉴욕예복교회(정상철 목사) 917-392-7063, scj322@yahoo.com 뉴욕은혜장로교회(신현국 목사) 646-243-2636, 뉴욕메시자교회(이창남 목사) 646-772-5947, nychang226@hotmail.com 오메가선교회(홍춘식 목사) 718-779-3192, ihomega9911@yahoo.com 예수안식교회(현배도 목사) 646-339-1280, nyeshua@yahoo.com	박영준 목사(뉴신일교회) 347-782-2171
9 Flushing 5	빌라소금교회(정순원 목사) 347-513-1351 뉴욕갯세네교회(이지용 목사) 917-693-2763, nygod4tge@yahoo.com 킨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718-886-4040, kapcomain@gmail.com 기근초교회(이대문 목사) 718-503-1616, peterlee@missionglobal.org 뉴욕한인등대교회(이동진 목사) 718-460-8807, dong-jin59@hotmail.net 빌라소금교회(정순원 목사)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후리성나사렛교회(김대준 목사) 718-321-9182, goto9191@gmail.com 뉴욕수문교회(윤갑필 목사) 646-284-2360, ny7kr@yahoo.co.kr 주님사랑선교회(박현숙 목사) 718-926-5599, hpsarkaa@hotmail.com 교협 29대 부이사장 김주열 장로 917-478-3303 (목양장로교회)	정순원 목사(빌라소금교회) 347-513-1351 박현숙 목사(주님사랑선교회) 718-926-5599
10 Flushing 6	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 917-559-8877 김성태 목사(주님의교회) 646-642-3533 뉴욕행복교회(이성현 목사) 347-224-9595, nydavid@hotmail.net 주님의교회(김성태 목사) 646-642-3533, pcakim@gmail.com 성물장로교회(현영길 목사) 347-538-7185, yhyun769@hotmail.com 목양장로교회(송병기 목사) 917-559-8877, moakson@gmail.com 뉴욕오스칼성결교회(최길종 목사) 917-573-8410, kiljongchoi21@yahoo.com 벨리츠스원교회(김종화 목사) 718-840-7984, 교협 29대 부이사장 김주열 장로 917-478-3303 (목양장로교회)	김성태 목사(주님의교회) 646-642-3533
11 Flushing 7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목사) 646-270-9771 권계덕목사(기쁨과영광교회) 646-247-8258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목사) 646-270-9771, joynglorich@yahoo.com 행복선교회(하정민 목사) 347-642-0403, jungtha2645@gmail.com 뉴욕선민교회(황성민 목사) 917-608-1075, hysmc9191@gmail.com 리빙스톤교회(유상열 목사) 917-862-0523, kyu2000@hotmail.com 뉴욕출가문교회(김경숙 목사) 718-463-6447, jungsook122@hotmail.com 큰샘교회(이은수 목사) 718-445-2291, springart205@gmail.com 누비전교회(황동익 목사) 917-734-1026, dongikhwang@gmail.com 순복음중앙교회(김영철 목사) 917-922-1110, kyccospe@gmail.com 뉴욕장빌교회(마조훈) 516-263-8587, nychambit@hotmail.com	권계덕목사(기쁨과영광교회) 646-247-8258
12 Flushing 8	킨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 917-620-8964 김영환 목사(효성교회) 914-393-1450 뉴욕제명장로교회(황정일 목사) 917-332-7332, 뉴욕광명장로교회(황의환 목사) 718-353-5596, heihwan@gmail.com 침양교회(차철희 목사) 646-270-5522, heewahim@hanmail.net 킨즈침례교회(박진하 목사) 917-620-8964, billypk@gmail.com 든든한교회(목사) 347-886-7349, eskykeem@hotmail.com 뉴욕새날교회(곽재혁 목사) 347-924-7695, revkwak123@yahoo.com 하예성교회(김진화 목사) 347-721-6003, life9191@gmail.com 뉴욕효성교회(김영환 목사) 914-393-1450, youngkim-1004@hanmail.net 올레미선민교회(박미례 목사) 347-754-8553, miraeapark@hotmail.com 미라비전교회(일태현 목사) 구세군한인교회(이상정 사관) 718-762-9613, vision819@hanmail.net 뉴욕갈릴리교회(정도영 목사) 718-662-6055, chungdoyoung@gmail.com	김영환 목사(효성교회) 914-393-1450

지 역	장 소	지역준 비 위 원 장
13 Flushing 9	프라미스교회(김남수 목사) 718-321-7800 뉴욕나눔장로교회(고재경 목사) 718-762-4348, spcko@hanmail.net 뉴욕서울장로교회(신우철 목사) 917-683-5045, ja22muse@naver.com 프라미스교회(김남수 목사) 718-321-7800, 지구촌선교회(고석희 목사) 845-267-4159, cwme01@gmail.com 뉴욕예은교회(김영옥 목사) 718-679-7721, pastornymyungkim@yahoo.com 뉴욕제자교회(정병목 목사) 718-359-4177, byunchong7@gmail.com 뉴욕밀알선교회(김영호수) 646-753-0375, mialchchurchny@gmail.com 뉴욕주는교회(김연수 목사) 718-352-1603, dustrnia@msn.com 뉴욕바전교회(김안국 목사) 917-558-7435, nyvisionchurch@gmail.com 뉴욕순복음광보리교회(정영호 목사) 718-698-8348, chungyounghyo@hotmail.com 누가교회(김수용 목사) 917-744-7696, sung0127@yahoo.com 하구교회(윤우성 목사) 718-812-1184, steveos@yahoo.com 교협 29대 부이사장 최철환 안수집사 917-992-3377 (프라미스교회) 교협 중경이사장 최원호 장로 516-333-5942, 516-375-7001 (프라미스교회) 중경이사장 유일용 장로 917-575-2079 (프라미스교회)	김영옥 목사(뉴욕예은교회) 718-679-7721
14 Flushing 10	대한교회(김전사 목사) 516-984-8888 박태규 목사(새침장로교회) 718-352-0968 뉴욕대한장로교회(김 건 목사) 516-224-4071, chunjoh@yaho.com 뉴욕루터교회(장시문 목사) 917-656-9385, mamashani@yahoo.com 메시아장로교회(최광진 목사) 718-321-7996, yohan0828@hotmail.com 영림교회(김필식 목사) 718-939-8278, holyphil@hotmail.com 뉴욕성원장로교회(한준희 목사) 917-566-5002, junhee53@hotmail.com 킨즈동부교회(정대영 목사) 718-757-2379, dchung3927@yahoo.com 뉴욕새침장로교회(박태규 목사) 718-352-0968, john61511354@yahoo.com 후라성제일교회(김은영 목사) 718-939-8599, 킨즈제일교회(황상하) 781-224-0473, joseph1952@naver.com 킨즈중앙장리교회(김은진 목사) 718-746-0623, etkim25@yahoo.com 한누리교회(조부호 목사) 718-670-5881, dreamer119@gmail.com 교협 중경이사장 박규기 장로 917-470-5969 중경이사장 강성철 장로 516-551-4180	박태규 목사(새침장로교회) 718-352-0968
15 College Point	뉴욕수정성결교회(황영송 목사) 917-541-9961 이문성 목사(주님의성막교회) 347-559-3030 뉴욕수정성결교회(황영송 목사) 718-461-9800, stevehwang@crystalchurch.org 뉴욕신교회(김영국 목사) 781-461-8464, revkm@gmail.com 뉴욕동원장로교회(박기근 목사) 718-446-8467, heeapark91@yahoo.com 뉴욕수정성결교회(이치훈 목사) 646-506-8488, jiy919@gmail.com 종신사잇교회(임윤수 목사) 917-617-0170, yongsomim@hotmail.com 양무리장로교회(김진관 목사) 718-939-0017, flockch@gmail.com 예수사랑장로교회(유한수 목사) 917-584-7570, jcloves98@yahoo.com 새침장로교회(문종은 목사) 917-583-6028, jmoon5ny@gmail.com 주님의성막교회(이문성 목사) 347-559-3030, appa2god@gmail.com 교협 중경이사장 박해용 장로 718-507-2200 (수정성결교회)	이문성 목사(주님의성막교회) 347-559-3030
16 Fresh Meadows 1	뉴욕기쁜교회(김홍석 목사) 646-287-7169 한석진 목사(한길선교회) 718-986-7731 뉴욕기쁜교회(김홍석 목사) 646-287-7169, hongskim1623@yahoo.com 뉴욕별명침례교회(김병근 목사) 718-646-0634, 뉴욕산교회(최희도 목사) 718-279-4906, owner@cohinny.com 한길선교회(한석진 목사), 718-986-7731, suhan56@hotmail.com 뉴욕사랑성결교회(황관호 목사) 718-224-7133, nyhopechurch@yahoo.com 뉴욕은성교회(김성은 목사) 732-947-2028, k2s2e2@hanmail.net 임시아델교회(김순원 목사) 918-503-4833, pastorguen@yahoo.com 주신장로교회(유기찬 목사) 718-751-5908, kichunyu@gmail.com 킨즈연향장로교회(김영국 목사) 718-644-2919, hyun36@hotmail.com 뉴욕친성장로교회(이성일 목사) 646-808-5118, victorhee4955@gmail.com 에벤에셀선교회(최창섭 목사, 이재용 목사) 718-570-5858, josephchoi0408@yahoo.com 부활의 새일교회(신한철 목사) 646-247-3171, shin468@gmail.com 교협 29대 친교이사 임해숙집사 347-416-0228 (늘기쁜교회)	한석진 목사(한길선교회) 718-986-7731
17 Bayside 1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 718-357-3355 강주호 목사(뉴욕신광교회) 718-357-3355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 718-357-3355 주영광 목사(뉴욕한민교회) 917-696-4100 뉴욕신광교회(강주호 목사) 718-352-8082, lordskang@yahoo.com 뉴욕성화교회(조희호 목사) 718-279-5842 한울림교회(김원재 목사) 917-362-5299, hulyncp@gmail.com 뉴욕방주교회(김전수 목사) 718-928-8100, kcs426@yahoo.co.kr 하은교회(고 훈 목사) 347-622-9747, gohoon@hotmail.com 뉴욕창교회(이신권 목사) 917-855-2021, shinkwonlee@gmail.com 뉴욕순복음중앙교회(임기주 목사) 718-225-2820 뉴욕한민교회(주영광 목사) 917-696-4100, glonjoo@gmail.com 실로암장로교회(장상우 목사) 718-229-5959, svchang1009@hotmail.com 뉴욕트리들의교회(홍선근 목사) 뉴욕사랑의교회(이재국 목사) 917-345-4700, lpcny@mail@gmail.com 리버마일교회(장문선 목사) 646-266-0039, gichang@hanmail.net 사랑의교회(강진식 목사) 718-813-3354, changil2001@hotmail.com 사랑의동산교회(강신용 목사) 646-662-6232, aerimkang@hotmail.com	강주호 목사(뉴욕신광교회) 718-357-3355 주영광 목사(뉴욕한민교회) 917-696-4100
18 Bayside 2	킨즈중앙장로교회(전광성 목사) 718-229-9191 이종명 목사(강성장로교회) 718-354-6609 에베그린장로교회(김종욱 목사) 718-614-4565, revkumockkim@gmail.com 뉴욕강성장로교회(이종명 목사) 718-354-6609, leejm153@hanmail.net 킨즈중앙장로교회(전광성 목사) 718-229-9191, kwang.s.jeon@gmail.com 세기나안교회(이병홍 목사) 516-822-0616, johnhblee@hotmail.com 뉴욕제일감리교회(지인식 목사) 347-408-4034, jeenisik@hanmail.net 메시아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 718-225-4365, david2lord@hotmail.com 주사랑장로교회() 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 917-514-0369, nypccpack@gmail.com 뉴욕창사랑교회(최요셉 목사) 718-213-1985, josephwchoi@hanmail.net 뉴밀레니엄교회(오대영 목사) 267-736-3127 교협 29대 교육이사 김학선 장로 917-559-2645, bestacademys22@gmail.com (강성장로교회)	이종명 목사(강성장로교회) 718-354-6609
19 Bayside 3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718-908-9819 한기술 목사(뉴욕할렐루야교회) 646-520-7667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718-908-9819, joykim777@gmail.com 한마음교회(장영숙 목사) 845-558-1467, diane.jeung@gmail.com 뉴욕할렐루야교회(한기술 목사) 646-520-7667, jameshan@earthlink.net 뉴욕성령장로교회(한재열 목사) 718-461-3945, saengmyung@gmail.com 뉴욕그리스장로교회(김종훈 목사) 347-224-9291, kjwbluesky777@yahoo.com 뉴욕시온산장로교회(김재호 목사) 718-281-3156, ezrakim59@gmail.com 새언약교회(이희선 목사) 917-432-432-4370, leencbcb@yahoo.com 뉴욕에달장로교회(임재홍 목사) 917-573-5866, pasorlh@msn.com 교협 29대 전교이사 박두원 안수집사 646-210-4915, candy3622@hotmail.com (한마음교회)	한기술 목사(뉴욕할렐루야교회) 646-520-7667
20 Little Neck 1	은혜교회(이승재 목사) 718-428-1447 장현숙 목사(뉴욕열린교회) 718-406-5997 은혜교회(이승재 목사) 517-747-2121, seungree@gmail.com 뉴욕은총장로교회(오태환 목사) 718-225-1007, jesustove27@gmail.com 뉴욕그레이트레이크교회(양민석 목사) 516-570-6371, lilyumc@hotmail.com 뉴욕하나장로교회(허윤재 목사) 그리스도영교회(주성물 목사) 917-232-6556, nygodsepelamy@hotmail.com 예수성령교회(김요셉 목사) 516-767-9246, esdas@hanmail.net 생명의교회(김영민 목사) 718-749-8293, abekim12@yahoo.com 뉴욕부아인교회(이철희 목사) 917-991-0703, seapoet@hanmail.net 뉴욕중부교회(김재열 목사) 646-244-3533, jykim47@gmail.com 뉴욕제자들교회(라용재 목사) 917-968-1024, rev.heunggha@gmail.com 뉴욕원빈교회(김두성 목사) 718-229-2406, hisrivier92@gmail.com 뉴욕안디옥침례교회(이선일 목사) 347-624-4846, 뉴욕화광장리교회(고민호 목사) 347-307-3312, hwakwang.ny@gmail.com 예수중언교회(김동식 목사) 718-753-8118, jesusswitnesschurch@yahoo.com 뉴욕열린교회(장현숙 목사) 718-406-5997, hyunchang777@gmail.com 교협 중경이사장 유사수 장로 917-576-4166 (은혜교회) 중경이사장 이대원 장로 718-702-7740 (은혜교회)	장현숙 목사(뉴욕열린교회) 718-406-5997

지 역	장 소	지역준 비 위 원 장
21 웨체스터	뉴욕한인제일교회(박효성 목사) 914-332-7640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목사) 914-948-1304, churikim@hotmail.com 양무리장로교회(류요셉 목사) 845-791-9332, 한인동산장로교회(이동성 목사) 917-270-2952, whitestone05@gmail.com 은혜와사랑교회(최기성 목사) 914-772-4036, gracelovechurch@yahoo.com 웨체스터연합교회(이태준 목사) 914-738-3076, revtjee@hotmail.com 웨체스터제일교회(김영 목사) 914-345-6755, kwykim@gmail.com 뉴욕한인제일교회(박효성 목사) 914-332-4933, songpark@hanmail.net 뉴욕능감리교회(안성국 목사) 917-637-0518, rev_ahn@yahoo.com 웨체스터장로교회(노성보 목사) 347-326-5530, sungboroh@hotmail.com 웨체스터반석교회(류요셉 목사) 845-791-9332, 호산나선교회(이영숙 목사) 914-963-2711 고센서교회(최고선 목사) 845-355-8829, goshen@yahoo.com 웨체스터 한빛교회(김종철 목사) 914-815-2285, joy2613@netzero.net 어린이가정교회(김영숙 목사) 917-971-6528, bridge-builder12@hotmail.com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이윤영 목사) 845-485-3006, yongyeunlee@gmail.com 올바나한인교회(김승배 목사) 518-453-1004, amoskim1@yahoo.com 올바나한인장로교회(문영철 목사) 518-355-1564, 은혜교회 백민교회	노성보 목사(웨체스터장로교회) 347-326-5530 노성국 목사(뉴욕능감리교회) 917-637-0518
22 웨체스터	스테이트아일랜드선교회(정광원 목사) 718-984-3333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준 목사) 374-233-1117, yhk65@gmail.com 뉴욕만백성교회(이명봉 목사) 718-701-4953, leejungbum@hotmail.com 뉴욕성결교회(장석진 목사) 917-597-2488, 718newhope@gmail.com 스타텐아일랜드중은교회(오조나만 목사) 646-644-6074, fullgraces@yahoo.com 은누리영광교회(김승배 목사) 917-932-4444, ktus@yahoo.com 한마음장로교회(오영관 목사) 718-819-8052, dyoh02@yahoo.com 스타텐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목사) 718-984-3333, 스타텐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기 목사) 718-477-0662, myungkikim@yahoo.com 스타텐은혜장로교회(홍형철 목사) 646-645-0691, paulhong0102@msn.com 교협 29대 이사장 이상호 안수집사 646-761-0899, pedicure240@gmail.com 부이사장 이상영 장로 646-703-2691, 총무이사 이상훈 안수집사 718-864-2568, 서기이사 조혜숙 집사 646-761-6996, 설씨이사 송신미 집사 516-551-4552 회계이사 황구연 집사 609-377-7267, richardhwang@creamoland.com 교협중경이사장 손석환 장로 917-273-6142 (스타텐한인연합감리교회)	김해근 목사(은누리영광교회) 718-494-5764 홍형철 목사(스타텐은혜장로교회) 646-645-0691
23 Bronx	뉴욕스망장로교회(장경태 목사) 917-825-5204 뉴욕매복교회((김영식 목사) 347-947-9302, yskim40718@hotmail.com 뉴욕스망장로교회(장경태 목사) 917-825-5204, hpccp97@hotmail.com 베드포드파크장로교회(김재복 목사) 917-548-2072, ungbekim@gmail.com 교협 29대 이사장 이상호 안수집사 646-761-0899, pedicure240@gmail.com 부이사장 이상영 장로 646-703-2691, 총무이사 이상훈 안수집사 718-864-2568, 서기이사 조혜숙 집사 646-761-6996, 설씨이사 송신미 집사 516-551-4552 회계이사 황구연 집사 609-377-7267, richardhwang@creamoland.com 교협중경이사장 손석환 장로 917-273-6142 (스타텐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배 목사(베드포드파크장로교회) 917-548-2072
24 Manhattan	뉴욕정원교회(주호식 목사) 212-629-7327 메트로폴리탄한인교회(한영송 목사) 212-932-7746, pastor@mkumc.org 그루티카장로교회(송승수 목사) 212-779-0901, ymmnt@aol.com 뉴욕예수교회(임윤환 목사) 914-403-3110, shy052754@yahoo.com 뉴욕정원교회(주호식 목사) 212-629-7327, newyorkgarden@hanmail.netf 뉴욕한인교회(정철우 목사) 201-282-4435, chang.kmci@gmail.com 맨하탄한인교회(안병재 목사) 917-207-5091, beejay0691@hotmail.com 소명장로교회(정진홍 목사) 201-461-6367, sohmyung@hotmail.com	주호식 목사(뉴욕정원교회) 212-629-7327
25 Brooklyn	브록클린제일교회(이문성 목사) 917-353-5477 뉴욕평안교회(우수환 목사) 917-293-5454, pastornwoon@hotmail.com 뉴욕장은교회(신상필 목사) 347-733-2108, pshin1000@hotmail.com 브록클린제일교회(이문성 목사) 917-353-5477, 뉴욕한인연합교회(허용구 목사) 347-560-6402, yheonye@gmail.com 뉴욕나니교회(박희준 목사) 646-549-6536, joonp01@yahoo.com 뉴욕포도원장로교회(임순진 목사) 917-754-5220, imsonsun@gmail.com 브록클린영성장로교회(권오현 목사) 718-209-2209, 연합세대로교회(정병희 목사) 718-236-6898, - 정수영 목사 아들 All Nations Baptist Church(김 레오니드 목사) 917-817-2690, kim_leonid@hotmail.com	이문성 목사(브록클린제일교회) 917-353-5477
26 L.I. 1	참사랑교회(은희곤 목사) 516-512-4424 플러싱한인교회(변광호 목사) 718-460-4741, changguok@yahoo.com 뉴욕선천교회(송영국 목사) 347-678-0800, sjhchurch@hotmail.com 영원교회(김재용 목사) 781-225-3343, jesus3343@yahoo.com 뉴욕파리교회(이명남 목사) 718-962-5131, peacechurch@hotmail.com 참사랑교회(은희곤 목사) 516-512-4424, pastor_en@gmail.com 시민교회(안천수 목사) 718-662-8084, cha6928@hanmail.net 뉴욕중앙선천교회(이명성 목사) 718-712-5753, sang78us@yahoo.com 뉴하이라파한인교회() 뉴욕성문장리교회(이성근 목사) 516-249-2479, nysungmoon@gmail.com 뉴욕한선교회(정길준 목사) 845-270-2308, calvinikchang@yahoo.co.kr	이명남 목사(뉴욕평화교회) 718-962-5131
27 L.I. 2	뉴욕예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347-251-0009 뉴욕예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 347-251-0009, jongjoy04@yahoo.com 뉴욕감리교회(강원근 목사) 516-822-2398, wokang@gmail.com 뉴욕반석교회(김대희 목사) 516-627-8558, bansukum@yahoo.com 뉴욕나신장로교회(이종구 목사) 516-767-7175, drckrhee@gmail.com 뉴욕아비및교회(성영철 목사) 718-539-0307, woornies@hotmail.com 화신교회(황태연 목사) 516-802-2673, hto3130@hotmail.com 뉴욕물뿔선교회(김동열 목사) 516-822-0976, 4glorykim@gmail.com 뉴욕성명성결교회(김대만 목사) 716-763-1224, kimtaekyeon@gmail.com 종아일뿔선교회(김석형 목사) 516-746-4084, shkim@gmail.com 뉴욕말씀장로교회(심재철 목사) 516-341-0692, revjishkim@hotmail.com 종아일뿔선교회(심재철 목사) 631-864-5799, kairs@holysatchurch.org 좋은목자교회(김신영 목사) 917-817-7374, minsiunyoada@msn.com 교협 중경이사장 이주익장로 646-410-5757 (뉴욕예일장로교회) 중경이사장 황구복장로 917-204-9879 (종아일뿔선교회)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347-251-0009
28 L.I. 3	한마음결교회(박미아원 목사) 917-922-0500 뉴욕델라밸리아정로교회(김태현 목사) 516-295-7387, revdavidkim@yahoo.com 뉴욕새교회(이성희 목사) 516-484-8004, tncnyl@gmail.com 할렘뉴욕교회(이광희 목사) 917-519-0459, hinhchurch@gmail.com 주비전교회(이규본 목사) 718-787-8999, bonhrhee@hotmail.com 뉴욕능성교회(김찬표 목사) 917-763-6991, chunpyokim@hotmail.com 한마음결교회(박미아원 목사) 917-922-0500, revapkm@gmail.com 뉴욕풍성한교회(박성일 목사) 718-683-8884, sungwonpark1212@gmail.com 뉴욕로물린한인교회(김사무열 목사) 516-317-3166, samryebye@yahoo.com 베드포드교회(박희원 목사) 646-413-8577, hyeeol318@yahoo.com 조은교회(최희원 목사) 917-742-5089, nypastor.ch@gmail.com 교협 중경이사장 송준복 장로 917-921-3310 (새교회)	최희준(조은교회) 917-742-5089
29 L.I. 4	뉴욕성서교회(김종일 목사) 631-274-9662 뉴욕성서교회(김종일 목사) 631-274-9662, chongrecondo10kim@hotmail.com 한신선교회(송원식 목사) 631-921-0329, songyoonk@gmail.com 열린교회(임영진 목사) 631-901-7590, youngkim@msn.com 종아일뿔선천감리교회(장계용 목사) 631-292-2629, lkumc@hotmail.com 미래다온교회(황일진 목사) 516-349-5559, hwant@arumdamchurch.org 뉴욕주마루교회(문정숙 목사)	장계용 목사(종아일뿔선천감리교회) 860-794-1671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고난! 그 설명서

잔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값진 것을 보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보석은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이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런데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인 것이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 모습 그제 노력하는 과정 끝에 얻어지는 진짜 보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가 성공이냐? 패배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성공

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진짜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적어도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분이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1학년이라면 지금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나중에 목회를 잘 할 수 있는냐고 저에게 묻는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주어진 현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지금 1학년 때만이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가 돼도 중요하다. 주어진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학교 때부터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목회를 해도 사명으로 충성하지 않고 논리를 펼치면서 사명이 아닌 교회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다. 우리는 노력의 결과가 과연 성공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인 것이다.

인생의 성공을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껍 오랜 기간 전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BC 1405년부터 1398년까지 7년간이라는 긴 세월을 싸웠다. 무슨 말인가? 인생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인생은 길고 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길고 긴 싸움 끝, 장기전 끝에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린다. 지금 내가 당장 잘되면 잘된 줄 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안다. 지금 당장 뭐가 됐든, 당장 뭐를 잘했다, 지금 당장 직장이 잘됐다, 그런 것

가지고 인생성공이나 승리를 노래할 것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기에는 인생이 길고 긴 과정이다. 그러므로 오직 한 번뿐인 우리 인생도 장기전임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도 장기전이다. 기도하자마자 응답될 때는 있지만 기도해서 당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마라. 우리 신앙생활도 길고 긴 전투이다.

전혜성이라는 분이 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사람으로 키운다’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분이 명문대에서 MBA학위를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자주 스카웃 되어가고 실력도 탁월해서 가는 곳마다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했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빠기면서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자리가 높아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라. 2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만 실직당하고 말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100미터 달리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생이란 마라톤이라고 하더라.

인생 좀 더 길게 보고 멀리보고

신앙생활 하기 바란다. 자녀들도 길게 봐주게 되길 바란다. 단기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사춘기 지나는 자식들 속 속 씩인다. 나는 자식농사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농사란 이른 비에 늦은 비, 뜨거운 여름 햇살 다 받은 뒤에야 비로소 영글어가는 법이다. 아니 끝까지 가보아야 한다.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다. 안 된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실패했다고 절망도 하지 말아라. 오늘이 끝난 것처럼 단정해선 안 된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너무 빨리 판단한다. 한두 번의 성공이 인생성공이 아니고 한두 번의 실패가 인생실패도 아니다. 인생이 길고 긴 전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단체 밀알의 총재 이재서라는 분이 쓴 ‘내게 남은 1%에 가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나중에 보내줍니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저는 실패의 고난을 겪으며 제가 왜 깊고 깊은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그 설

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공식은 이렇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주어지면 그게 실패이고 그래서 억울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줬는지 설명서를 보내주실 건데..” 그 다음 표현이 더 재미있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옵니다”고 표현했다.

오늘 실패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이란 길고 긴 전투이기 때문에 언젠가 진정한 인생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타고 오는 고난만 보고 ‘실패다, 좌절이다, 안 됐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단기전에 흥분하지 말고 긴 세월동안 성공이든 실패든 오늘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그 과정임을 인식하고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2014년 4월 ‘가처분신청 인정’ 합의

KAPC, 총회원에 이탈총회와의 재판종료 보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 총회가 2014년 3월 이탈총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Preliminary Injunction) 승인 판결이 상대측의 인정으로 최종 종결됐다. 이로써 그동안 본 총회의 명칭과 지적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이탈총회와의 법적 분쟁은 끝을 맺게 됐다.

정관일 총회장측은 지난 17일 총회 산하 회원들에게 총회 재판 종료에 대한 보고문을 발송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보고문에 의하면 최종 합의안의 골자는 “피고인들로부터 ‘KAPC(총회장 정관일 목사) 총회가 참되고(true) 유일한(only)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사실을 인정하

는 진술을 받았으며, 따라서 이탈총회는 KAPC 교단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본 총회의 명칭과 로고 등 기타 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총회 산하의 교회들과 목사들, 그리고 장자 우리 총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교회들이나 목사들에게 일체의 접촉(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KAPC 총회에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또 총대들에게 피고인 측이 합의안과 달리 총회를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총회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전파기나, 총회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할 경우 임원들에게 알려줄 것을 촉구했다.

총회측은 “총회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불행의 불씨는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며, “이번 합의안은 지난번 가처분신청 확정 판결과 같은 의미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하고, “정식재판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법정소송에 쏟아야 하고 물질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APC총회는 지난 10일 LA에 있는 세계소망장로교회(담임 서세훈 목사)에서 총회 정상화 감사예배를 드린 바 있다[본지 제1526호 9면 참조].

(유원정 기자)

글로벌선진학교 미국 캠퍼스 개교

10년 만에 정규학교 인가...올가을 펜실베이니아에

한국 글로벌선진학교(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가 올가을 미국 캠퍼스 개교를 앞두고 미주한인 학생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개교에 앞서 오는 4월 미국 캠퍼스에서 열리는 기독교 지도자 초청 무료 교육 컨퍼런스 홍보를 위해 남진석 설립 위원장은 미국의 주요 도시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성경적인 가치를 강요당하는 작금의 공립학교 교육 현실 속에서 글로벌 선진학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선진학교는 2003년에 개교해 현재 음성과 문경에 1000여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2010년과 2013년 각각 정규 중, 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학교로 발돋움 했다.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미국 캠퍼스는 185에이커(약 22만평)의 대



글로벌선진학교 미국 캠퍼스 개교 기념 교육컨퍼런스 개최

지에 80여개의 건물을 구비하고 있고 2 개의 실내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스타디움, 각종 교실 및 실험실, 최신식 기숙사 시설 등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올 가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선출된 9학년과 10학년에 진학하는

50~60여명이 첫 수업을 받게 된다. 남진석 이사장은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에 입주해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성과 인품, 실력을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전교생을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최고수준의 명문대학에 합격할 경우 외국학생에 비해 다양한 장학금과 정부보조금 지원이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본 글로벌선진학교 미국 캠퍼스의 연간학비는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포함한 2만5천 달러로 미국의 일반 사립 기숙학교에 비해 저렴하다. 또 태권도, 축구, 음악 등 각종 예체능 활동과 다양한 외국어 교육, 수준 높은 교사 채용과 인근대학교의 협력 수업 등으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개교에 앞서 글로벌선진학교는 200여명의 미주한인사회 지도자들을 선착순으로 등록받아 4월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교육지도자 컨퍼런스를 열고 21세기 기독교 교육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다음 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공감대를 마련한다.

자세한 문외는 (717)830-9356, (301)401-1482, (972)878-3533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오감으로 읽는 성경읽기”

제자목자회 주최, 세미나 강사 김동문 목사

제자목자회(디렉터 김재영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김동문 목사

(전 요르단 선교사, 서울나들목교회 선교목사)가 강사로 나서 최근 자신이 지은 책 ‘오감으로 성경읽기’ 내용으로 강의했다.

김동문牧사는 “공동체가 성경을

일상적 시선으로 공감하며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경을 보면서 머리로만 쓰기보다 온 감각을 사용해 성경을 읽고 공감하면 좋겠고 이러한 성경나눔이 교회공동체 안팎으로 이어져서 풍성한 성경이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지난 23일 미동부지역 겨레사랑 모임이 유기남 이사장과 이영훈 이사장이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이영훈 이사장 “임현수 목사 조속귀환 노력”

미동부지역 겨레사랑, 한국 회장/이사장 뉴욕방문

미동부지역 겨레사랑(회장 한재홍 목사, 이사장 양승호 목사)이 한국 겨레사랑 본부 유기남 회장과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3월 23일 플러싱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가졌다.

회장 한재홍 목사는 “뉴욕에서 겨레사랑 사역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뉴욕교계가 보수적이라 북한을 돕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며 “독일이 통일에 될 수 있었던 바탕은 서독의 교회들이 동독 교회뿐 아니

라 민족을 도운 것이 큰 역할을 했다. 환경이 어떻든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들이 꾸준히 북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겨레사랑은 정부차원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간단한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북한주민을 위해 1백개 지역에 진료소를 세우는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80%가 민둥산인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기남 회장은 “현재 진료소 10



플러싱학교 우종학 박사과 함께하는 신학과 과학 세미나에서 우종학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주제

플러싱학교 우종학 박사초청 ‘신학과 과학’ 세미나

천체물리학과 우종학 교수(서울대학교)의 ‘신학과 과학’ 세미나가 플러싱학교(총장 마크 레버튼 박사)에서 ‘과학시대에 기독교가 직면한 세 가지 도전’이라는 주제로 19일 오후 7시 성령리에 열렸다.

우종학 교수는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가 넘는 별이 존재하고 있고,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존재한다. 또한 허블과 트레트르를 통해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965년도에 절대

온도 3도의 배경복사 발견을 통해 우주는 빅뱅(Big Bang)이라는 대폭발이 있었으며, 우주의 나이가 대략 138억년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계는 우주 역사의 후기에 만들어졌다. 천체물리학에서는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진 시기를 약 46억 년 전으로 본다. 또한 생물들의 화석 기록을 보면 지구는 수억에서 수십억 년 전부터 시작됐으며, 점진적으로 복잡한 생물 종의 화석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



제자목자회 주최 오감으로 읽는 성경 세미나에서 김동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명했다.

그는 “과학을 통해 우주의 역사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 과학은 일정정도 자연세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좋은 도구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과학이론은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비신자에게 우주는 하나님이 없이 자연법칙에 의해 유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복음을 반증할 때도 자연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기독교 관점에서 우주를 보고 찬양하는 것과 우주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바로 자연신학의 한계”라 언급했다.

그는 또 “진화에 대한 것도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와 무신론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는 전혀 다르다”고 전제하고 “시간에 따른 자연현상의 변화를 표현하는 ‘진화’(Evolution)나 우주나 생물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학이론인 ‘진화이론’(Evolutionary Theory)과, 진화이론을 무신론적으로 해석한 ‘진화주의’(Evolutionism)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화는 진화주의이며 진화주의는 진화가 어떤 의도 없이 저절로 일어났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과학이 제시하는 우주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로 이해하며, 과학주의 무신론자들과 근본주의 기독교의 문제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창조(WHO)는 진리이며, 창조의 그림(HOW)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여성교회 연합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여성교회 연합수련회가 4월 6일(월)부터 8일(수)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웰리티니에서 열린다. “여성들이여, 관계에서 성공하십시오!” 주제로 강사는 정정숙 전도사(매릴리터리치원장).

▲문의: (718)886-4040

사모를 위한 ‘섬과 영성’

Joe Ministries USA(대표 이상목 목사)와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가 공동 주체하는 사모를 위한 ‘섬과 영성’의 장이 4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15일(수) 정오까지 할리데이인 토토와 웨인에서 열린다. 무료이며 참석인원은 40명 제한. 교회일보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자녀를 위한 도서상품권을 증정한다. 강사는 장규준 목사, 오선일 목사, 이상목 목사,와 자수아씨 전도사가 찬양리더로 섬긴다.

▲문의: (646)266-1017양순아 사모, (321)444-1320사라장 간사, (347)805-4399윤희자 중무

‘빛과사랑’ 제 5회 장학생 선발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빛과사랑’(발행인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는 제 5회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대학생, 대학원생. 제출서류는 신청서(본사양식), 성적증명서, 본인 또는 부모 세금보고서, 에세이, 담임목사 추천서가 필요하다. 제출처는 Light & Love, Inc.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 NY 11050.

▲이메일: lightnloveny@yahoo.com

뉴욕전도대학교 개강예배

뉴욕전도대학교(학장 허윤준 목사) 2015년 봄학기 개강예배가 3월 31일(화)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637-1470, (516)528-9119

손소혜 · 양정석 오키나와 감사 찬양 축제

월드밀알찬양신학교 후원을 위한 손소혜·양정석 오키나와 감사 찬양 축제가 4월 26일(주) 오후 6시 뉴욕 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다. 프라미스어린이합창단이 찬조출연한다.

▲문의: (718)357-3355

제 31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뉴욕예술가곡연구회(회장 서병선)와 두리하나USA가 주최하는 제 31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가 5월 3일(주) 오후 6시 JHS 189오디토리엄(주님의교회, 담임 김상태 목사)에서 열린다. 출연은 소프라노 박진원, 박혜상, 김재연, 백성화, 테너 김성욱, 서병선, 바리톤 오동규, 피아노는 김해은이 맡는다. 이외에 뉴욕그레이스여성합창단(지휘 서혜영)이 특별출연한다. 티켓은 15달러이며 예매처는 김영란꽃집과 뉴욕아트송스.

▲문의: (718)551-7186, (212)567-6919

뉴욕지역 2015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정 확정

예배장소 총 29곳...지역구분 다소 변동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이 19일 준비모임을 갖고 2015년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일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8면 광고 참조]. 일시는 4월 5일(주) 새벽6시에 각 지역에서 일제히 드리게 된다.

올 부활절새벽연합예배의 지역구분은 총 29개 지역으로 지난해 25지역보다 4개 지역이 추가돼 더 세분화 됐다. 지역구분도 다소 차이를 보여 우드사이드 2개 지역을 1개로 통합했으며, 플러싱은 7개 지역을 10개 지역으로, 베이사이드는

지난해 2개 지역을 3지역으로 세분했다.

지역구분은 코로나, 우드사이드, 서니사이드, 엘름허스트, 플러싱(10지역), 칼리지포인트, 후레스미도우, 베이사이드(3지역), 리틀넥, 웨체스터, 스탠포아일랜드,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롱아일랜드(4지역) 등이다.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준비위원장 박마이크 목사는 “무엇보다 협력에 필요한 뉴욕교계가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를 계기로 더욱 연합하고 하

나가 됐으면 한다”면서 “부활의 소



뉴욕과 미국 부흥 위한 대뉴욕지역 연합기도대회 둘째 날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특송하고 있다.

2015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 소강석 목사

일시 6월 26-28일...뉴욕교협, 18일 공식발표



2015년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사진)로 발표했다. 일시는 6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지 3일간 열린다. 장소는 미정.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은 18일 저녁 프라미스교회에서 열린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강석 목사는 2006년 플든센터에서 열린 할렐루야복음화대회 강사로 선 바 있으며 이번에 두 번째 할렐루야대회 강사로 뉴욕에 오게 됐다. 한국교회의 중진 목자들이 주로 강사로 섰던 할렐루야대회에 2006년 당시 소강석 목사가 최연소 강사로 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맨땅, 맨손, 맨몸’의 ‘3맨 목회’로 유명한 소강석 목사는 ‘맨발의 목회자’라는 소명을 붙들고 새에덴교회를 개척,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목회로 교회를 크게 발전시켰다. 새에덴교회는 교회개척 13년 만에 5천명의 성도를 돌파하면서 많은 교회개척자들에게 희망과 도전을 줬으며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소강석 목사는 광신대, 개혁신학대학, 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북미 Knox신학대학에서 목회학박사를 받았다. 한국문인협회 시인이기도 하며 개신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도 역임했다. 저서로 ‘맨발의 소명자’, ‘불붙는 영성을 회복하라’, ‘비전의 가문을 세우라’ 등이 있다.

소강석 목사는 본사가 주최하는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주 강사로 여러 차례 초청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십자가 신앙으로 영적 회복 이루자”

뉴욕교협,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며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뉴욕 방문 중 뉴욕 목회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23일 오전 8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이 주최한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는 양승호 목사 사회로 김준근 목사의 찬양후 방지각 목사의 기도, 이재덕 목사의 환영사, 이만호 목사의 감사소개 후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고린도전서 2장 1,

2절 말씀을 강조하며 “한국 교계가 타락하고 몰락주의로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모습 등 영적 능력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고 한기총 회장을 맡았다”고 말하고, “사이비 이단 재검증, 한교연과의 통합 등의 사역을 통해 한국 교회의 하나되는 모습을 세계 교회에 보여주기 원한다”며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임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다.

또 이영훈 목사는 “이단교회는 삶 자체가 힘들다.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면 영적인 힘이 목회현장에 나타



뉴욕교협이 주최한 이영훈 목사 초청 조찬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나게 될 것이다. 21세기 세계교회의 3대 흐름(WCC를 중심으로 에큐메니컬운동, WEA를 중심으로 이반젤리컬운동, 오순절 은사운동)이 있는데 어떤 교단 단체든지 핵심에 예수 십자가만 있도록 해야 한다”며, “뉴욕

으로부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 오르도록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성현 목사의 광고가 있었으며 박희소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망으로 각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뉴욕교협은 부활절까지 정기적으로 부활절새벽연합예배 준비기회를 갖고 성공적인 행사진행과 뉴욕교계의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이 땅 고쳐주소서” ...합심기도

뉴욕과 미국 부흥 위한 대뉴욕지역 연합기도대회

뉴욕과 미국의 부흥을 위한 대뉴욕지역 연합기도대회가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과 뉴욕목사회(회장 이만호 목사) 주최로 지난 18일부터 사흘간에 걸쳐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 땅 고쳐주소서”(Heal Our Land)라는 주제로 열린 이 기도대회는 한기총 목사(은혜한인교회, 미기총대표회장),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이성철 목사(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가 강사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첫날은 프라미스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이규섭 목사의 사회로 기도 이종명 목사, 환영사 이재덕 목사(성경복음회), 찬양 뉴욕장로성가단, 설교 한기총 목사, 헌금특주 뉴욕퀸즈교회, 헌금기도 이상호 안수집사, 합심기도(회개의 기도: 박마이크 목사, 가족의 회복을 위해: 윤오성 목사), 광고 한기총 목사, 축도 김남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기총 목사는 “성령의 바람이 땅 고쳐주소서”(겔37:1-10) 제목의 설교에서 미국이 무섭게 타락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가장 위험할 때 기도하기 위해 한인들을 준비시켜줬다고 강조했다. 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미국을 치유하시기 위해 첫째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며, 둘째 말씀이 들어가야 하며, 셋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김중훈 목사 사회로 기도 김영환 목사, 환영사 이만호 목사, 성경봉독 이대연 장로, 찬양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설교 정인수 목사, 헌금특송 송정미 교수, 헌금기도 최현숙 목사, 합심기도(미국국가지도자를 위해: 김

기호 목사, 한국국가지도자를 위해: 박현숙 목사, 뉴욕할렐루야대 성회를 위해: 허윤준 목사, 세계선교를 위해: 장현숙 목사), 광고 김진화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인수 목사는 “부흥의 하나님 부흥의 인생”(창35:1-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금은 분명 위기의 시대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 앞에는 영적 타락의 위기가 있었다”며,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야 하며 ‘모든 부흥의 공통된 현상이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회개의 부흥, 성령충만의 부흥’이라는 박용규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선대(종심)인 뉴욕에 부흥의 불길,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다면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날은 프라미스교회 찬양팀의 찬양에 이어 최창섭 목사 사회로 기도 김영환 목사, 환영사 허연행 목사, 성경봉독 황규복 장로, 찬양 프라미스찬양대, 설교 이성철 목사, 헌금특주 신우철 목사, 헌금기도 박영진 장로, 합심기도(학교 회복을 위해: 이성현 목사, 문화 회복을 위해: 박태국 목사, 교회 부흥을 위해: 권계덕민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 송병기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철 목사는 “중보기도자의 자기관리”(사62:6-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보 기도자에게 필요한 5가지들을 전했다. 이성철 목사는 “중보 기도자의 정체성 스즈님과 친밀한 교제 스즈결함 스철저한 말씀 준비 스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회는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와 자마가 주관했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니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대: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공부: 오후 1:15 수요교양강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F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 아 예배: 오전 10:45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없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대: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och.com	뉴욕순복음안다목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찬양대: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1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ed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수, 주) Tel. (201)342-9194, Fax. (201)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hchurch.org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찬양예배: 오후 8:10 수요예배: 오후 8:30 주일학교강좌: 오후 12:30 주일학교강좌공부: 오후 1:30 수 요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a.org Tel. (516)333-1757, 송파전, (516)74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주일스튜디오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양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좋은목자교회 담임목사: 김신영 주일예배: 오전 2:00 영아예배: 오후 2:00 화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성경공부: 오후 4:00 OT주일: 오전 9:30(화) Tel. (516)584-4088, www.joungmocha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 11746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d.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qcn.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r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신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pccv.org Tel. (604)584-576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 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n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저녁 7:4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약, 중, 고, 동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광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강좌: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1, 2, 3, 부 사제사관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ni@hanni.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남가주, 로스앤젤레스 제외 8개 지역서

2015년 부활절연합예배 4월 5일 오전 5시(30분)

남가주 한인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4월 5일(주) 새벽 일제히 드러진다.

이번 부활절연합예배는 로스앤젤레스를 제외한 오렌지카운티, LA동부, 인랜드, 샌퍼난도 밸리, 중부, 사우스베이, 벤주라, 샌디에고 등 8개 지역에서 교회협의회 및 교역자협의회, 목사회 주최로 열린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와 OC목사회(회장 객재필 목사) 공동주최로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LA동부 지역은 동부교역자협의회(회장 송병주 목사) 주최로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오전 5시30분 연합예배를 드린다.



2015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남가주 8개지역에서 일제히 열린다. 사진은 작년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 장면

△중부 지역은 중부교회협의회(회장 심명구 목사) 주최로 한인감사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오전 5

시30분 연합새벽예배를 드리며 △사우스베이 지역은 싸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현수 목사) 주관으로 오전 5시30분 남가주살롬교회(김

준식 목사)에서 열린다.

△샌퍼난도 밸리 지역은 샌퍼난도밸리 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 주최로 은혜와평강교회(담임 객덕근 목사)에서 오전 5시30분에 드리며 △벤주라카운티 지역은 벤주라교역자협의회 주최로 새벽 6시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영 목사)에서 갖게 된다.

△샌디에고 지역은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심종훈 목사) 주최로 오전 5시 샌디에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열리게 된다. 북쪽은 팔로마 한인교회(담임 서명성 목사) 남쪽은 샌디에고사랑의교회(담임 박병섭 목사)에서 각각 부활절연합새벽예배를 드리게 된다.

△인랜드 지역 인랜드 한인교회(회장 박신철 목사)는 ANC 은누리교회 인랜드 캠퍼스(담임 박성호 목사)에서 오전 5시30분에 갖는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지역 부활절연합예배는 갖지 않는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영락교회 장학생 모집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미주한인기독교인 학생이며 장학금 신청은 오는 4월 17일(금)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

www.scholarship.youngnak.com

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성적표는 우편을 통해 교회(1721 N. Broadway, LA, CA 90031)로 보내면 된다.

▲문의: (323)227-1400

주님세운교회 전도부흥성회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사순절을 맞아 27일(금)부터 29일(주)까지 마리아노 목사(알모롱가 갈보리교회 담임)를 초청, 전도부흥성회를 갖는다.

▲문의: (310)325-4020

월드미션대학 가을학기 신입생모집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 목회학 박사과정 2015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M.Div 학위 혹은 동등학위 취득자나 혹은 동등 학위과정 GPA 3.0이상. 또는 M.Div 학위나 동등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사역 경험이 있는 자. 입학신청서 다운로드와 자세한 것은 www.wmu.edu 에서 볼 수 있다.

▲문의: (213)388-1000

투게더 청년연합집회

투게더 청년연합집회가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고전 8:1-13)’이라는 주제로 28일(토) 오후 6시 달라스 생명샘교회(담임 안광문 목사 12801 N. Stemmons Fwy. #803, Farmers Branch, TX)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달라스 생명샘교회 담임인 안광문 목사.

▲문의: (469)684-0037



APU에서 열린 신원규 목사 저서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출판감사예배에서 신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에서 여병현 목사가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소개를 하고 있다

신원규목사 책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APU 한인동문회 주최로 출판감사예배

신원규 목사(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의 저서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출판감사예배가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한인동문회(회장 광경동 목사) 주최로 20일 오전 10시 APU이스트 캠퍼스 내 노널드 보드 룸에서 열렸다.

신원규 목사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우리 인생은 마치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갈 때 지나게 되는 터널처럼 수많은 터널이 있다. 그 터널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 역시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이러한 터널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규격에 빛나갈 때 주어지는 시간들이다”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목회자로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겸손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과 섬김이 지속적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고 언급한 후 “하나님께서 강하게 몰아붙이셔서 성도와 사역자,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 사역자로서의 역할이 옹도 폐기되는 줄 알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께서 붙잡아주셨다”고 말하며 “이 모

든 것들이 주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어려움 속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도하며 내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러한 것들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목사는 “책 발간 후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순간순간 예전의 교만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꾸로 오르는 사다리’ 속의 삶처럼 살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문 직전회장 최장식 목사의 사회와 김창균 목사(하나인교회) 찬양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동문회장 광경동 목사(새살로교회)가 기도했으며 오우영 목사가 특송했다. 이어 총장특별자문위원 박성민 박사가 ‘세운공적’(고전3:10-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신원규 목사 인사말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동문 정중환 목사(남가주믿음의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는 미래 한인교회의 비전”

제21회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제21회 후원의 밤을 21일 오후 6시 옥스퍼드플레이스호텔에서 열었다.

찬양과 경배 시간으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김수진 이사장이 인사말을, 여병현 목사가 어린이전도협회 소개와 나눔 시간을 인도했다. 김수진 이사장은 “후원의 밤에 참석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여병현 목사는 “어린이전도협회는 한분 한분 협력 속에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소개한 후 “지난 7-80년 대만해도 어린이들이 많

다. 그 당시 어린이들이 성장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 현재 전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는 26,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그 당시 어린이들”이라 말했다.

여 목사는 “현재 어린이가 성인보다 많은 교회는 거의 없다. 이는 향후 2-30년 후 한인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비어갈 것임을 예상케 한다. 어린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인도하자. 미래 한인교회 선교를 위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이 있다. 어린이전도협회 사역과 함께 동참해 아름답게 사역 펼쳐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기금마련 제3회 보치엘레스티 정기 콘서트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기금마련을 위한 제3회 보치엘레스티 정기콘서트가 21일오후 7시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

서 열렸다.

정영희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연합감리교회에서 아프리카에 퍼져 있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운동들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 기금마련을 위한 제3회 보치엘레스티 정기콘서트에서 보치엘레스티와 영엔젤스 콰이어가 함께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전개해나갔다. 이를 위해 7,500만 달러 펀드를 마련해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5,400만달러가 모금됐다. 작년에 월서교회에서 말라리아퇴치모금행사에서 12,500달러가 모금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말라리아는 100%치료 가능한 질병이다. 그러나 약이 없어 말라리아에 걸린 어린이들이 1분에 한명씩 삶을 마감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운동을 하기 전에는 30초에 한명씩 죽었다. 이 운동이 더욱 활성화돼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가 100% 퇴치될 수 있도록 협력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콘서트는 보치엘레스티가 ‘

주 너를 지키시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함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등 성가곡과 ‘강 건너 봄이 오듯’, ‘남촌’, ‘내 마음의 강물’, ‘내 영혼 바람 되어’ 등 가곡을 불렀다.

또한 보치엘레스티 단원인 테너 오우영 목사와 소프라노 알토 정현주 씨가 각각 솔로로 노래를 불렀으며, 영엔젤스콰이어(지휘 크리스틴 정)이 찬조 출연해 콘서트를 빛냈다. 이날 콘서트는 보치엘레스티와 영엔젤스콰이어가 함께 ‘아리랑’을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한미대학원 :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 521-0891, Fax. (714) 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 913-4484, Fax. (323) 913-448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EM예배 :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 오후 7:30 새벽 기도회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 388-7101, (F) (213) 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 오전 5:30 토요일 : 오전 6:30 EM, 대학원 : 오후 1:30 주일학교 : 오전 11:00 Tel. (562) 691-0691, (F) (562) 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EM) : 오전 1:30 주일 학교 :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 오후 8:00 새벽 기도회 : 오전 5:40(월-금) Tel. (213) 481-2779 / Fax. (213) 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목요예배 : 오후 7:00 새벽예배 :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 215-8523, Fax. (213) 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20 금요찬양예배 : 오후 7:30 영아침(KDC, 킹덤다임센터) 1부 : 오전 9:20 2부 :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 오전 9:30 새벽 기도회 :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 저녁 7:30 Tel. (310) 719-2244, Fax. (310) 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g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영어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 오후 7:45 Tel. (213) 483-6625, Fax. (213) 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c.org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 오전 9:30 3부 영인예배 : 오전 11:00 4부 영인예배 : 오후 12:30 수요예배 : 오후 7:00 새벽예배 : 오전 6:00(월-토) Tel. (323) 466-1234, Fax. (323) 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정약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 저녁 8:00 주일예배 : 오후 4:00 Tel. (213) 559-7728 (전화) 박스 겸용, Tel. (213) 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 오전 11:30 금요예배 : 오후 8: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토) Tel. (626) 793-0880, 0200 Fax. (626) 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택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수요예배 :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 오전 8:30 (영어) 2부 : 오전 9:45 3부 : 오전 11:00 (청년) 4부 : 오후 1:45 새벽기도회 : 새벽 6:00 www.mpcia.org Tel. (213) 381-2202, Fax. (213) 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9:00 금요예배 : 오후 8:00 새벽 기도회 : 오전 5:45(월-금) 새벽기도회 : 오전 6:00(토) Tel. (213) 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www.kkpc.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 오전 11:00(청년) 주일예배 5부 : 오전 2:00(다문화) 성경영어예배 : 오전 11:00 대명영어예배 : 오후 1:00 영어새벽기도회 : 오후 7:30 Tel. (949) 854-4010 / E-mail: bel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락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영어예배 :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학교 : 오전 11:00 수요예배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 오후 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 (562) 690-9800, Fax. (562) 690-8044 501 S. Lido St,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 오전 2:00(EM) 금요예배 : 오후 8:00 새벽예배 : 오전 5:30 (월-토) Tel. (213) 745-9191(CH), 새벽 (818) 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정호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1:30 새벽 기도회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 857-9425 / Fax. (949) 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 오전 11:00 수요예배 : 저녁 7:30 금요예배 : 저녁 7:30 새벽기도회 : 새벽 5:30 Tel. (213) 245-4090 Fax. (213) 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유규서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 오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 오전 11:00 토요일영어예배 : 오후 6:00 Tel. (213) 384-7274, Fax. (213) 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 오후 8: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6:00(토) 영어새벽기도회 : 365일 24시간 온론 www.gracemc.com Tel. (714) 446-6200, Fax. (714) 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00 수요/영요예배 : 오후 7:30 새벽예배 :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Fax. (213) 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gcj.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 오전 9:00 주일 대예배 : 오전 11:00 수요예배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stv.com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 530-4040(CH), Fax. (310) 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백율 주일 1부예배 :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 오후 2:00(청년) 금요예배 :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이단대처 적극 공조기로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연석회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고신·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한국교회의 7개 주요 교단은 자문 변호사제 운영, 이단정보 교류 등을 통해 이단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들은 23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정합동 총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이단대책위원장 모임 지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우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단정보를 교류하고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강의안, 동영상, 연구조사서 등 이단·사이비들의 정보 자료 사례 등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단·사이비 대처 때 일어나는 행정 및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 인사 등으로 자문 변호사제를 함

게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각 교단 노회마다 이대위 설치, ‘이단경계주간’ 공동 준수에도 합의했다.

박호근 예정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최근 일부 연합기관이 교단의 동의도 없이 이단을 해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단 지정·해제는 신앙과 교단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 교단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에 보도된 ‘하나님의교회에 소소한 정장면 목사’ 기사에서 보듯 이단들이 자금력을 앞세워 이단성을 지적하는 목회자와 교수,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고 있다”면서 “무차별적인 이단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문 변호사제를 공동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원 기성 이대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신목주씨 측 때문에 예상합신 등 다수의 교단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 이단 세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이단성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교단 이대 위원들이 효과적인 이단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단과 교계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준식 예상통합 이대위원장도 “예장통합은 65개 노회가 운영 중인 데 4개 노회에서 1명씩 이대위원을 파송하고 있다”면서 “전국 노회에서 파송된 이대위원과 신학자 등으로 구성된 이대위원회가 이단성 시비가 있는 인사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단성이 있다고 총회에 보고만 하면 그대로 통과돼 강력한 공신력을 갖고 소·고발하고 있다”면서 “합석자들은 다음달 예정통합 총회본부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 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의 고통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親)동성애자 단체들이 인권위의 탈동성애 인권포럼 장소 제공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홀리라이프는 22일 성명에서 “동성애자 중에는 동성애 지향자, 트랜스젠더 지향자, 그리고 탈동성애 지향자 등 세 부류가 있다”며 “동성애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면서 탈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무시하고 마치 동성애 인권은 자기들만의 권세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목사는 “내가 만난 많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탈동성애 문제를 토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다는 것은 타 종교와 다른 종교 신도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종교적 편향에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봉은사역명은 부적절하다”면서 “서울시민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명이 특정 종교이 홍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명으로 부적절하다”면서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이 오는 28일 개통되므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해당역명을 929 정거장으로 해 달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38개 교단, 11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만3000개 교회와 690만명의 성도가 소속된 기독교 연합 기관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함께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한교연,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향후 분쟁 논란 될 수 있는 것 배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20일 서울시가 봉은사역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한교연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봉은사역명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시조례에 ‘지하철 역명은 향후 분쟁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역명 확정·고시권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가 기준을 스스로 위반했다”면서 “봉은사 역명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가처분 신청 제출 이유로 역명제정 기준 무시, 서울시장의 공정성 상실, 시민정서 위배를 꼽았

다.

한교연은 “봉은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찰도 아니고 공공시설, 지역을 대표하는 다중 이용시설도 아니다”면서 “계다가 역명을 확정·고시한 박 시장은 2007~2010년 봉은사 미래위원장과 신도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이해당사자”라고 지적했다.이어 “봉은사는 과거 전일행위를 앞장서서 했던 대표적 공간으로, 서울시민 및 강남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정서에도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교연은 종교편향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교연은 신청서에서 “공공시설 이름을 종교적 이름으로 명명

은 이제 이라크 내에서의 군사적 행동에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티그리트 전투에서 IS를 후퇴시킨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칼리파 제국 척결대안은 바로 모슬을 재탈환하는 것이다.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은 IS 퇴치에 선봉을 맡고 있는 세력은 다름 아닌 시아파 민병대들이고,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

시아파가 다수인 이란이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의 득세에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아파가 인구의 대부분이 이란의 견제가 어찌면 이라크 중도 수니파들로 하여금, IS를 자신들의 보호 세력으로 간주해 동맹을 맺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모슬 공격작전은 비분파적인 이라크군 주도로 진행되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라크 군은 사기 형성도 안되었을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만약에 모슬을 재탈환한다 하더라도 IS는 제거할 수 있다. 그들에게는 시리아라는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충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IS를 시리아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전략

창간 50주년 기독교신문, 목회자 의식조사 결과 발표

예장합동 목회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목회 규모는 교인 100~300명의 중소형 교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영향과 더불어 ‘작지만 강한 교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목회자들이 개선해야 할 점과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의 가장 큰 부분이 ‘목회자 자질’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신학교 교육 및 목회자 재교육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101~300명 교회 희망” 50.8%	이러 “대형화를 추구하다 그 이미지를 실추시킨 교회들이 그동안 보여준 부정적 이미지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나이스 R&C’에 의뢰해 지난 2월 3~4일 소속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목회자 의식조사’ 결과, 목회자들은 교인 100~300명 규모의 목회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필요로 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목사는 “지금은 작지만 건강한 교회, 큰 교회보다는 ‘큰일 하는 교회’를 지향해야 할 때다. 이미 이러한 교회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의 방향만 잡아간다면 중소형교회들은 한국교회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

예장합동 목회자 70% “대형교회보단 중소형교회 목회 희망” 개선할 점, 현장 고충은 ‘목회자 자질’ 문제

반면 1,001명 이상의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1,001~10,000명 이하 정도의 대형교회는 1.6%, △10,001명 이상의 초대형교회는 1.8% △501~1,000명 이하의 중대형 교회는 7.8%로 나타났다. 희망 성도 수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담임목사(50.8%)들은 101~300명의 중소형교회를, 부교역자(31.3%)와 40대 이하(24.9%) 목회자들은 301~500명의 중형교회는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는 “현재 우리 교단에 20명 미만 교회가 1,750개, 50명 미만 교회가 5,500개 그리고 100명 미만은 75%라는 통계를 접한 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1~300명을 희망하는 현상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했다.

목회자의 자질 부족, 현장에서의 고충으로 이어져

한국교회 목회자의 부족한 점으로는 ‘인격과 품격’(4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높은 도덕성(23.8%), 신학적 깊이(13.0%), 사회참여(9.8%), 교회 전반을 운영하는 목회 경영(3.8%) 등이 뒤를 이었다.

‘인격과 품격’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희망 성도 수 101~300명(51.7%) 및 1,001명 이상(53.8%)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높은 도덕성’은 50대(26.6%), 희망 성도 수 300~500명(28.6%)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김관선 목사는 “교단이나 교회가 목회자의 인격이나 품격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가 대두될 때 보다 신속하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목회자를 재교육하고 치료하여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회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목사 개인의 자질(역량) 부족’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38.6%로 1위를 차지한 것. 다음으로 교회의 양적(규모) 성장이 20.0%, 교회의 부족한 재정이 18.2%로 많았다.

이밖에도 교인들의 목사 리더십 불인정(6.2%), 당회와의 불화(5.0%), 가정불화 및 가족의 사역 참여 등 가족 문제(3.0%), 여성교인과의 부적절한 관계(0.4%)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에 김목사는 목회자 선발 및 교육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과 훈

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 자질 문제는 목회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지식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신학교 교육 문제와 직결된다”며 “현재 우리 교단은 목회자를 선발할 때 반드시 목사후보생으로 노회의 추천을 받는데 과연 철저한 검증을 하고 추천을 하는지, 신학교육 과정 중에서도 양심과 인성 문제로 걸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엄선된 인재에 대한 전역 장학금 제도, 철저한 교육, 기준 비탈 시 탈락 조치 등을 통해 자질과 인성, 그리고 능력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해야 한다”며 “안전하게 책임을 지면서 철저한 훈련을 받도록 하여 자질과 인격이 의심스러운 목회자가 배출되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예수님의 품성닦기 100만인 참여운동’ 확산 매주 또는 매일 한 가지 훈련하고 묵상실천

‘예수님의 품성닦기 100만인 참여운동’이 전국교회에서 계속 확산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품성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동기를 말한다. 성경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벧후1:4)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빌2:5)으로 그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다.

(새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설립자 정근모 박사) 품성교육원이 만든 ‘예수님의 품성닦기 21일 프로그램’은 교재를 통해 21개의 핵심 키워드로 받는 품성훈련이다.

현재 이 교재를 활용해 품성훈련을 하는 범위가 아주 넓다. 요즘 전 교인훈련 21주용, 21일 새벽기도용, 제직훈련용, 개인큐티용 교재로 사용되고 또 개인과 소그룹 모임에서도 교재를 이용, 스스로 공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운동을 일선에서 전개하는 라이즈업코리아 박지혜 이사장은 “품성전문가 3명이 모여 깊이 있는 교재를 만든 데다 값이 저렴(5000원)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며 “이

- 성경이 보인다 - 사도행전 12: 25:30-27; 26:24-32

‘हेतु अनदिभा’의 자리를 이어 퉁치한 ‘हेतु अग्रिपम 1세(Herod Agripas I)’는 그의 이복형제 아리스토불루스(Aristobulus)의 아들이다. 그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를 죽였으며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등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심하게 괴롭히다가 갑자기 벌레에 먹혀 죽었다. 요세푸스도 ‘हेतु अनदिभा’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

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은 후 죽었다고 기록하였다. 그의 아들 ‘हेतु अग्रिपम 2세’는 바울의 재판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हेतु अग्रिपम’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역시 요세푸스의 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이토록 세속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은 성경의 내용이 지닌 ‘역사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보충자료’로서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mission 선교의 창 (28)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선교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3월 29일부터 4월 4일은 고난주간이다. 처절한 고독과 아픔이 있는 절기이다. 이 뜻 깊은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굵은 베옷을 입으며 고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구태여 외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모든 죄와 규례로부터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의식 없이 일들에 휩싸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일 년에 한번 있는 이 고난주간마저 간과한다면 과연 언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체휼할 수 있을까?

오늘날 시대가 참으로 어렵다. 사상의 혼돈과 여기 저기 적그리스도들이 속출하고 있다. 세상에 선지자이며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할 교회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쟁투가운데 있는 곳도 여럿 있다. 선교현장 역시 내, 외의 많은 도전들 앞에 힘들어 하며 연합을 못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십자가의 주님보다 인간들이 앞서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희생과 능력이 없는 곳에서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사순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한 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선교든 목회든 아니 그 어떤 일이든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에 함몰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어두움에 우겨 잠을 당하여도 늘 경성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

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바빠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일보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다.

1. 십자가에 대한 존 스토틀 (John R. W. Stott) 목사의 해석

십자가는 기독교의 낱아버린 전통적 문양이 아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

이다. 우리의 죄와 죄책만의 사죄의 장애가 아니다. 죄책을 짊어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의 대응 또한 장애물이다. 이러한 양대 장애물은 십자가를 통하여 해소되었다. 십자가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죄를 폭로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하는 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취는 4가지로 압축된다.

역사에 의하면 5-7세기 경 아일랜드의 켈트족 수도사들은 유럽대륙에 기독교 전파를 가져온 해외 선교의 선두주자였다. 그들은 선교사로 떠날 때 ‘빠레그레나찌오’라는 서약을 하고서 떠났다. 이 서약을 하면 마치 프랑스 국기와 모양이 비슷한 3가지 색으로 된 조그만 깃발을 달아주었다. 이 3가지 색깔의 깃발은 자기 인생 가운데 3가지

십자가를 앞에 두는 자는 두려움과 방황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는 자는 마음에 평화가 있다.

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가교이다. 그것은 신구약을 하나로 묶어 주며 기독교의 신앙적 상징뿐 아니라 삶의 지침인 것이다. 십자가는 신약사상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축인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독점적인 표지이며 기독교 지침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왜 우리의 사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는가? 사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인간의 반향,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 사이의 필연적인 충돌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

첫째는 성전에서의 의식의 의미로 화목(propitiation)이다. 둘째는 시장에서의 상거래를 통한 의미의 구속(redemption)이다. 셋째는 법정에서의 사용되어지는 의미의 칭의(justification)이다. 넷째는 가정 혹은 가족 속에서의 의미인 화해(reconciliation)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성취는 곧 구원의 이미지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사랑의 완전함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이다.

2. 십자가 정신을 실현한 켈트족 수도사들

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내용인즉, “첫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한다. 둘째는 나에게 익숙한 고국/문화/환경을 포기한다. 셋째는 나에게 편안한 모든 미래를 포기한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무장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십자가 정신으로 인하여 5-7세기에 독일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벨기에 지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아가 유럽의 북서쪽에서부터 선교가 번져나갔다. ‘빠레그레나찌오’의 놀라운 위력이었다. 성령의 역사는 그저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를 태워서 죽이는 ‘십자’가 필요하다. 아일랜드 켈트족(영어로 셀틱) 중 부름 받은 선교사들

은 자기를 산화하는 하나의 십자 역할을 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받으셔서 놀랍게 사 용하신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사역

목회든 선교든 자칫하며 중심을 잃고 과업 지향적이 되기 쉽다. 많은 이들이 지켜보며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인간이 앞서고 십자가의 주님은 뒷전이 된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그러면 인간의 찬사와 박수가 터진다. 십자가의 주님 없는 사역은 한낱 인간의 비즈니스와 다를 바 없다. 단기간에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바벨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각을 항상 십자가의 주님께 맞추어야 한다.

십자가는 자기희생이며 포기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됨을 포기하고 하나의 제물로 바쳐졌다. 한데 우리는 십자가의 상징인 희생과 포기보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유를 위한 계산은 사악한 죄악이다. 십자가는 결코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이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의 좌표이며 모든 영역에 중심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근거이며 성화되는 수단이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가 증거 할 주제이며 자랑할 대상이다. 십자가 없는 선교와 목회는 요란한 소리만 날 뿐이다. 그 곳에는 화려할지 언정 생명의 태동은 없다.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목회와 선교현장가운데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의 가슴속에 십자가가 빨강계 불타고 있는가? 그

렇다면 교회가 정화될 것이다. 선교현장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맺는 말

지난 2천 년간 교회역사를 돌아보면 선교는 철저히 대가를 요구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연히 아무데서나 일어나지 않았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있는 곳에서 역사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지만 처절한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셨다. 초대교회 역시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 부흥 성장했다. 위의 언급한 켈트족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근세 이름 있는 선교사들은 모두가 자기희생을 했다. 일제시대 민족의 선각자들이나 현대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草芥)같이 바쳤다. 그 이면에는 가족을 돌아보지 못한 눈물 나는 사연이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 쓰임 받은 선각자나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신앙고백이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신앙은 결코 어떤 것에도 대치할 수 없는 순명이었다. 이 절대적인 십자가의 신앙이 급변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다. 20세기 상반기에 ‘강해설교의 제왕’으로 평가받은 설교의 거인(巨人)인 캄벨 몰간(Campbell Morgan)은 이렇게 말했다.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 그렇다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하고 있는가? 선교는 십자가이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74)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가로 푸는 열쇠>

1. 좋음과 좋지 않음(민13:19).
3. 마을 근처에 있는 낮은 산(아6:2).
5.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눅1:3).
7. 창고를 지키는 사람(스7:21).
9. 말 타는 군인(대하1:14).
10. 아벳의 손자요 아완의 아들(창10:4).
11. 세 날(행9:9).
12. 지환(눅15:22).
14.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가 있고...(계4:6).
15. 어룡어룡한 무늬가 생기고(속6:3).
18. 골리앗의 아우(대상20:5).
20. 적당한 기회(롬13:11).
21. 새끼 양(벧전1:19).
23.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림(시78:2).
24. 부자일수록 더욱 부자가 됨(명).
27. 품은 뜻과 몸가짐이 조화하고 높아 속된 것에 굽히지 않는 기상이 있음(빌3:8).
28. 살아나올 길이 없는 곳(잠5:5).
29. 산뜻하게 모양을 내어 꾸미는 물품(창33:6).

<세로 푸는 열쇠>

1. 호수와 식구별로 기록한 장부(눅2:1).
2. 호위하기 위하여 팔린 종병(왕하11:11).
3.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함(명사).
4. 산이 많은 땅(수20:7).
6. 우주 만물의 창조자(창1:1).
8. 영적인 호흡.
9. 트라리의 아들로 레위족속의 족장이다(출6:19).
11. 죄를 용서하여 줌(시130:4).
12. 예수님+귀신들린 두 사람+돼지 때(마8:28).
13. 아내의 옛스러운 말(렐6:11).
16. 가리켜 보이는 표(렐21:19).
17. 온갖 동물의 살(신12:20).
19. 끝을 맺지 못하고 흐리멍덩하게 넘겨 버리는 모양(부사).
21.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착하고...(왕하10:3).
22. 양아버지(사49:23).
23. 유다와 히스기야시대의 바벨론왕 므로다발라단의 아버지(사39:1).
25. 물에 빠져 죽음(명).
26. 성전(신2:30).

십자말 정답

하	미	오	카	수		조	아
오	수	단	단	배	마		배
	배	오	부		오	크	아
수	조	부	구	구			
조	배	조	이	단	아	단	아
			드	오	조	크	수
단	단	배	배	아	단	크	
오	배	조	조		구		크
배	오	크	단	단	마	구	단

PRINTING & PROMOTION

프린팅 & 프로모션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머그컵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 - 토 :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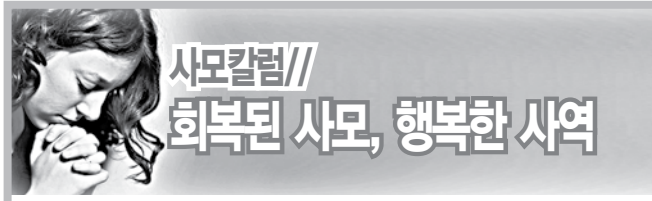
bookskorea@gmail.com

부활절 축하 광고

Happy Easter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7 Jarvis Ave., Syosset, NY 1179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210-10 Horaca Harding Exp Bayside 11364 Tel. (718)639-3021 Fax.(718)507-6376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Fax.(303)422-6943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323)466-1234 Fax. (323)466-081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0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벤엘교회 3165 St. Johnes Lane, Ellic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중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3521 Lomita Bl, #200 Torrance CA 90505 Tel.(310)749-0577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714)524-8800 Fax.(562)690-8044	샤롯데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el. (818)952-2449	시애틀평양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Tel.(347)753-4551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 최창섭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Tel.(718)570-585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i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215)927-06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516)277-1103 Cell.(917)922-05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P사모사역원 원장)

11. 사모의 가정 가꾸기(3)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되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혼율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순종하라는 명령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한다 해도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변함없듯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야 하는 것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가정사역자로서 많은 여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남편을 존경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갈등을 갖

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남편을 순종해야 할까요?

성자에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이 세상에 아기에수로 오신 후 33년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세마네동산에 올라갔습니다.

마26:39, 막14:36, 눅22:42, 요12:27.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하소연하는 간절하고 애달픈 심정을 구구절절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는 주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도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신 예수님! 한편 그 분이 누구인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 애절한 기도를 올리셨던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결론 내리신 예수님의 결단. 이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유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부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구구절절이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도 우상숭배를 많이 하였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으나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국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공황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에스겔 36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아주 멸망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러나” 로 인해 남편에 순종함으로 가정의 최종 목적 기록 완성

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변함없이 행복의 원리를 강조할때마다 아내들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단한가지, 가정을 만드신 주인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참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때에 가질 수 있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 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한가지 그것은 거룩입니다. 가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때 순종이 나오고 진정한 순종은 마침내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쉬운 일들은 일반 여성들도 별 노력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이 나의 이상에 아주 잘 맞고 만사에 불만이 없어서 날마다 행복을 느끼며 사는 아내들에게는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혼 초에는 그렇게도 멋있어 보이던 남편이 살면 살수록 실망을 안겨주며 결국엔 후회막급 이혼까지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책으로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도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때만이 일어난다는 법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허드렛물을 담은 항아리에 물을 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하여 디베랴 바다로 갔던 베드로가 한 마리로 잡지 못하는 실패의 밤을 맞이하여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상식에 맞지도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전능하신 주님은 드디어 일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되어 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부부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임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함 이었습니다.

성부하나님의 “그러나”가 없었더라면, 성자하나님의 “그러나”가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들은 멸망으로 마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하나님도 “그러나”를 사용 하셨습니다.

롬8:26 “이와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러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낙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원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의 지혜와 능력이 남편보다 훨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여 영성이 훨씬 앞서 간다해도 “그러나”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부하나님이 그러하셨고, 성자하나님이 그러하셨고, 성령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내도 “그러나” 남편도 “그러나”를 다짐하며 결단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은 찾아오게 됩니다. 결혼의 최종 목적인 거룩을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6: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교회의 구원(엡4:1-16)찬하나님의 형상(창1:24-31) 찬 519장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죽지 않은 은혜를 브니엘로 표현한 본문은 야곱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보이는 성화의 계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첫째, 야곱의 자아가 부서졌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 되고 자기의 죄인 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위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둘째, 야곱과 겨룰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일은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힐 때만 가능합니다. 야곱의 간사한 죄의 비참함을 상대하기까지 낮아져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로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이름처럼 그리스도도 주시는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스라엘의 이름은 정말 복됩니다. 점점 더 거룩한 자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화 원시 복음(창3:14-19) 찬 377장

최초의 복음으로 알려진 3:15에서 구원의 풍성한 씨앗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 앞에 바로 서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의는 뱀의 저주(14), 죄의 심판(15), 고통(16), 야곱(17), 죽음(18)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빛 앞에 정직히 살아가야 합니다(약1:17). 둘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중에도 은혜는 세 가지 형태 뱀의 저주와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과 가정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세상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하늘의 부름에 응답하라고 가르칩니다. 심판 중에서도 본래 주신 소명(1:22)은 그대로 남겨 두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먹이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본래의 형상을 누리게 하려는 구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고전10:31).

수 참 예배(창4:1-15) 찬 43장

타락과 동시에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은 그림자형태이지만 구원을 누리도록 참 예배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떻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 최상의 제물은 드리는 자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벨은 그의 제물을 드릴 때 먼저 그 자신이 제물임을 알았습니다. 양의 제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합당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받으십니다(고후9:5). 우리의 삶을 거룩, 경건, 믿음, 사랑, 인내 그리고 온유로 준비된 삶을 산 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딤후6:11).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준비하신 유일한 속죄제물이었습니다. 셋째, 주의 제단에 쏟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 위에 약속된 복을 부으십니다. 참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목 아브라함의 복(창12:1-9) 찬 511장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단지 물질, 번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의 흐름인 구속사의 빛으로 볼 때 우리는 복의 노란 자위를 알게 됩니다. 첫째, 원천의 복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가문에서 그를 부르신 자체가 전적인 은혜였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원천의 복으로 채우셨습니다. 둘째,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받은 복은 외형적인 것 이상의 복입니다.

일찍이 예언된 구원주를 그를 통해 보내시려는 뜻과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갈3:14).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믿음을 가진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미 받은 복의 원천을 감사하며 그 복을 세상에 나누는 꿈을 실현하는 영적 거부로 살아갑시다.

금 야곱의 사다리(창28:10-22) 찬 94장

도망가면 야곱의 고생길에 임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그 이상의 빛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꿈속에 나타나 사닥다리를 통해 어떤 구원의 진리를 가르칩니까? 첫째, 구속자는 그리스도뿐이심을 보여줍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속을 이루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 신자는 자비하신 구원의 길을 가

집니다. 열린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시다. 둘째,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회복입니다. 야곱이 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교통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상실한 목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약속입니다. 예수 안에 성취된 교통의 은혜인 풍성한 형상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토 브니엘의 복(창33:22-32) 찬 364장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죽지 않은 은혜를 브니엘로 표현한 본문은 야곱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보이는 성화의 계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첫째, 야곱의 자아가 부서졌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위골 되고 자기의 죄인 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위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둘째, 야곱과 겨룰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일은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힐 때만 가능합니다. 야곱의 간사한 죄의 비참함을 상대하기까지 낮아져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로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이름처럼 그리스도도 주시는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스라엘의 이름은 정말 복됩니다. 점점 더 거룩한 자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필독서!!

총신교회 원로목사인 박종순 목사의 40년 목회 이야기를 엮은 책으로,
목회자의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건네는 격려와 조언을 담았다.



336면 / 14,000원 / 신국판 양장

완주자의 노래

박종순 지음

목회는 세상 논리를 따라 일정한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

목회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때와 장소, 감정과 상황을 따라 변하는 사람들을

대하려면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목회는 마라톤이다'이라고 정의내린다.

중도 포기나 탈락 없이 완주자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판승부보다는 완주 목회가 중요함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한다.



■ 저자/박종순

동부이촌동의 총신교회 원로목사로
서, 사단법인 한지터 이사장 겸 대표, 한
중기독교교교류협회 대표회장, 한국세
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숭실
대학교와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C채널 TV방송 회장을 맡고 있다.

함께 읽을 만한 박종순 목사의 또다른 저서

하나님의 사람들

344면 / 12,000원 / 신국판 양장
총신교회의 원로목사인 박종순 목사의 29번째 실교집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제목은 본서를 대하는 모든 독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하자는
저자의 바람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다양한 말씀을 전해주시며,
부활절, 사순절을 비롯한 여러 특수 실교도 함께 모았다.



죽부언어

272면 / 10,000원 / 사륙판 양장
사람은 한마디 말과 한 줄 글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삶을 정
돈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깨달음이 없으면 침묵과 다
를 바 없다는 생각에 틈틈이 쓰고 모았던 글들을 책으로 묶
어 펴내기로 하고 책명은 “죽부언어”로 정했다.
그렇기에 책을 읽는 독자는 복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지혜
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글인터넷주소 : qumr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7-1004(대)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에 통일의 날이 임하도록!

한국과 해외의 교회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도록!

통곡기도회

기도행진 선언

해외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이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를 통일의 해로 선포하고 통일 한국을 통해 복음선교의 물결이 북한 땅에 밀려 들어가도록 함께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통일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제목

- 주여, 유대민족처럼 동서독처럼 우리 민족을 분단 70년에 통일시켜 주옵소서!
- 주여, 북한의 강제수용소가 열리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굶는 자들이 먹게 하소서!
- 주여, 북한의 지하성도들이 풀려나와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 주여, 북한 동족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북한선교의 문을 열어 주소서!
- 주여, 통일된 후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선교하는 선교민족이 되게 하소서!

2015년 통곡기도대회 일정

달라스 통곡기도대회 - 5월 13일 (수) 장소: 빛내리교회 / 달라스 지역
디트로이트 통곡기도대회 - 5월 20일 (수) 장소: 디트로이트연합감리교회 / 미시간지역
아틀란타 통곡기도대회 - 5월 29일 (금) 장소: 베다니교회 / 조지아 지역
와싱턴 통곡기도대회 - 7월 15일 (수) 장소: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
뉴욕 통곡기도대회 - 9월 16일 (수) 장소: 뉴욕순복음교회 / 뉴욕지역
로스엔젤레스 통곡기도대회 - 9월 29일 (화) 장소: 크렌셔 크리스찬 센터 / 남가주 지역

호소합니다!!

- 통일없이 진정한 북한선교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 통일없이 진정한 남한교회의 대각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선언합니다!!

- 올해 말까지 대한민국의 100개 이상 교회들에서 통곡기도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됩니다!
- 올해 말까지 시드니와 동경과 빠리에서 해외 통곡기도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너희를 전 세계에 흩으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처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처럼)

"나의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울처럼)

- **주관**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 **공동대표** 박희민목사, 이원상목사, 송정명목사, 김인식목사, 손인식목사, 송기성목사, 임창호목사
- **국제대표** 손인식목사
- **연락처** UTD 선교본부 사무실 문성범 행정실장 (949-297-3788)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s Viejo, CA 92691
 이메일: utdusa21@gmail.com, 홈페이지: www.kccnk.org

1. 통곡기도회 개최를 원하시는 교회들은 UTD 본부의 문성범 실장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949-297-3788)
2. 후원하시기 원하는 분들도 UTD 본부의 문성범 행정실장에게 전화 (949-297-3788) 주시거나 홈페이지 후원방법안내를 참조해 주십시오.



KCC KOREAN CHURCH COALITION
그 날까지 연합기도 운동

